

01 여는시

02 (평화누리) 여기에 아파트를? - 민원기

03 (책을 열며) 평통사를 한국 평화운동의 큰 나무로 만들자! - 홍근수

04 (특집) 좌담회 - 새해 한반도 정세 전망

05 (시론) 대북한 공격력 강화와 동북아 군사패권강화를 노린 미군재배치 - 서재정

06 (세계평화군축운동 동향) 평화와 군축을 위한 아시아 연대의 모색 - 조희연

07 (번역글)

일미동맹의 군사적 거점 오키나와의 반기지투쟁-평화인권자립을 향해서-  
미군의 필리핀 복귀에 대해-안전보장, 인권, 평화에 대한 영향-

08 (미군범죄) 맥팔랜드 출석재판과 구속처벌을 촉구하며! - 이형수

09 (회원탐방) 정혜열 고문

10 2004년 새해 포부와 다짐

11 (회원의 글) 아는 만큼 움직여야 하는 삶... - 이은직

12 평화카페 - 퍼즐

13 만평

14 (화보) 2003년 평통사 5대 뉴스

15 NEWS

◆책을 열며◆

평통사를 한국평화운동의 큰 나무로 만들자!

상임공동대표 홍 근 수

사랑하는 평통사 회원 여러분!

2004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는 2004년은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표정이 밝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난 해, 자주와 평화, 민중생존권 확보의 국민적 염원을 안고 출범한 노무현 정권이 너무도 빨리, 그리고 너무도 노골적으로 자신의 반민족적, 반민중적 성격을 드러낸 결과가 2004년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라크 파병 문제가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 등 한미동맹 재조정 문제가 우리의 미래를 저당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 집시법 개악 등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비정규직 차별과 손배 가압류 문제, 한-칠레 FTA, 노점상에 대한 생계대책 없는 청계천 복원공사 등이 우리 민중들을 옥죄고 있으며, 범민련, 한총련 등에 대한 잇따른 공안탄압이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단체가 2004년도에 모든 사회운동단체들과 힘을 합쳐 전개할 과제가 아직도 태산과 같아서 그 길이 매우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라크 점령 미군 철수 요구와 함께 이른바 북핵 문제를 빌미로 부시 정권이 코리아에서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싸움을 온 힘을 다해 벌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미군 재배치 등 한미동맹 재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국제적 연대를 통해 부시 미국대통령을 낙선시키는 운동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 대하여 한국군 이라크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과 함께 이른바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에 놀아나지 않도록 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주국방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미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여 종속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행태를 저지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6.15 4주년을 맞아 남북공동선언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하고, 남과 북의 교통망이 이어져 기차와 버스가 달리며 시베리아의 가스는 북한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 등도 민족사적인 문제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4월에 있을 총선은 부패와 함께 이라크 파병에 찬성하는 자들, 반공 입장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반대하며 집시법 등을 개악시킨 정치인들을 낙선시키고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해는 우리 평통사가 중요한 전환을 한 해였습니다. 자주통일과 평화군축을 기치로 하고 대중화, 전국화, 전문화를 조직적 지향으로 하는 전국단일조직으로 평통사를 재창립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조직을 2개에서 7개로 늘렸고, 회원 수도 2배 이상 늘려 이제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또한 국방비 증액 반대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여 이 운동의 선도조직으로 나

섰으며, 이른바 '미래 한미동맹 재조정'에 대한 대응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와 한미연합지휘체제 전면 재검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앞장서서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통일성은 아직은 낮은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실무력도 충분치 못하며, 재정상태도 매우 부실합니다.

평통사 회원 여러분!

올해는 평통사가 창립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또한 지난 해 말, 신공덕동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평화운동의 만형이라는 것에 자족하거나 지난 해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새 해를 맞으면서 우리의 다짐과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세와 대중의 요구에 민첩하고 효과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조직적 태세를 갖추는 것과 함께 중앙과 지역 평통사의 내실과 결속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우리의 힘을 더욱 크게 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10주년을 맞는 평통사를 한국평화운동의 크고 튼실한 나무로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새해 한반도 정세 전망

일 시 : 2003년 12월 26일

장 소 : 서울 평통사 사무실

참석자 : 이원섭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강정구 동국대 교수, 이철기 동국대 교수

사 회 : 박기학 평통사 정책실장

▶사회) 바쁘신 데 좌담회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북핵 문제가 새해에도 한반도 정세를 규정하는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말로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전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 교수] 부시 정권의 경우 공화당 외교기조와 부시 대통령의 외교기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 제 1항에 무력사용 우선주의를 넣고 있어요. 9.11 테러는 전쟁불사 정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됐고 실제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또 테러전쟁이라는 명분 하에 필리핀 등 여러 지역에서 작은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부시정권의 세계전략이 무력 우선주의 임이 분명하고, 그런 기조가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이라크 전쟁이 수렁에 빠져있기 때문에 조금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지, 이라크 상황이 안정되고, 중국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못 거둔다든지 특히 대선이 끝나는 2005년쯤 되면 상당히 위험국면으로 치닫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이 말로는 평화적 해결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군사력 증강, PSI(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 구상) 등 전쟁의 고삐를 전혀 늦추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이 실장] 큰 틀에서 강정구 교수님의 분석에 동의합니다. 다만 부시 정권의 대북 정책은 현상적으로는 매우 모순되고 혼란스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 내 강은 파대립이 여전하기 때문이죠. 부시 대통령이 협상을 앞세운 파월 국무장관의 손을 들어주는가 싶더니 결정적 순간에는 협상진전을 견제하는 강경파들의 손을 들어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상적으로 모순되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새해에도 북 핵 문제가 순조롭게 풀려 갈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선, 이라크 전쟁 때문에 당장 이라크처럼 하지는 못하리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 굴복을 요구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봅니다. 지금 2차 6자 회담 개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설사 열리더라도 순조롭게 풀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 미국은 평화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02년 10월에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배경도 미국이 한반도에서 냉전 해체를 막기 위

한 것이었죠. 부시는 북의 일방적인 양보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에서 대선 때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서 과시하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또 리비아의 경우와도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비아의 경우 체제보장이나 경제제재 해제라는 보상을 주었는데, 부시 입장에서 리비아는 전술적 문제고 중동정책을 더 강화하는 의미인데 비해, 북한 문제는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시 행정부가 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시 정부 내에서도 북한 붕괴를 주장하는 네오콘이 있지만, 북한 붕괴보다는 MD 추진 등의 명분으로 삼고, 한반도에서 냉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미국에 위협적인 강대국으로서의 북한이 계속 존속하는 것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더 일치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선 때까지 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부시가 재선된다면 2005년 이후 한반도 전쟁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됩니다.

2차 6차 회담 전망과 관련해서는 미국 대선이 6차 회담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북한의 대응과도 연관돼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부시의 재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때는 대선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고 6차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부시의 당선가능성이 낮을 경우에는 북한으로서도 시간을 끌면서 대선 후에 협상을 진전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부시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북도 6차 회담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이라크 전쟁이 북핵 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또 이라크파병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 교수]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도 소강상태에 있고, 또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현상 유지가 부시 행정부의 현재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 전쟁이 빨리 정리된다면 다음 대상이 북이 되지 않을까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북이 이라크 전쟁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고 봅니다. 즉 북이 북핵 해결 후 체제보장이라는 미국의 정책을 수용하게 되면 이라크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라크는 7년 여간 사찰을 받았지만 결국 미국의 침공을 받았는데, 북으로서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 사찰을 받게 되면 미국이 여러 가지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문제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시의 재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북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떤 형식으로든 협상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교수] 노무현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2차 파병을 결정했는데,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1차 파병 때도 부시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했고 노 정부는 4월에 파병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약속과는 정반대로 노골적인 전쟁위협을 가했고, 7월에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는데 중국이 부랴부랴 6차 회담을 통해서 소강상태로 끌고 갔습니다. 8월부터는 수렁에 빠진 이라크 전쟁 때문에 한반도 위기가 소강상태로 빠진 것이죠. 이런 사실로 볼 때 1차 파병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미국의 강경책이 그대로 지속되었던 거죠.

2차 파병 결정도 미국이 노무현 정부를 갖고 노는 식입니다. 10월 APEC 정상회담 때 부시가 다자간 안전보장 이야기를 꺼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 이라크 파병 결정을 유도하였죠. 그리고 나서 12월 6자 회담이 구체적으로 조율되는 시점에서 부시는 안전보장 이야기를 뒷전으로 미루고 북이 핵 시설을 완전히 폐기한 다음에야 안전보장을 해주겠다면서 돌아가 버린 거죠. 이런 사실에 근거해 볼 때 파병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한다고 믿는 게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 하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오히려 우리가 파병을 해서 이라크가 상황이 안정되면 미국행정부내 강경파가 더 득세를 하고 부시가 재선되고...이렇게 이라크 파병은 평화적 해결이 아니라 한반도 전쟁위기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실장] 이라크 문제와 북 핵문제는 사실 별개인데 이를 연결시켜 사고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입니다. 북핵 문제는 파병한다고 해서 풀리고, 안 한다고 해서 안 풀리는 게 아니죠. 북핵 문제는 미국의 대북대동북아 정책 및 세계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은 MD체제, 중국견제, 동북아에서의 자기 영향력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북한 위협론을 내세우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죠. 추가 파병이 한반도 전쟁위기 시 우리가 전세계 평화애호세력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반전여론을 일으켜야 할 때 자가당착에 빠지게 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시 대통령이 지난 번 북핵 문제를 긍정적으로 접근할 것처럼 발언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파병 약속을 받아낸 빛이 있기 때문에 체면상 6자 회담과 관련해서 모양새를 갖추고 싶어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회담을 여는데 주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 교수] 그것도 미국의 자발적인 의사라기보다는 중국이 자신의 중재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태도를 상당히 불만스러워 하니까 동시행동의 원칙도 협상의 대상이라는 정도로 나온 거죠. 미국의 기본 전략은 정해져 있고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 양보하는 척 하고 또 조금 진척이 되면 기본구도를 밀고 나가는 것이 그 동안 미국의 태도였지 않은가 합니다. 동시행동의 원칙을 협상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너무 낙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장] 제 얘기는 미국이 처음에는 북한이 상당히 양보하는 것을 전제로 잠정적인 합의 문안을 만들어 놓고 회담을 열어보려고 했다가 북한이 거부하고, 또 중재자인 중국이 보기에 도저히 북한이 그런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어렵다고 하자 그렇다면 문안은 만나서 상의하더라도 일단 회담을 열어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자, 다시 말해 모양새를 갖추자는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를 풀려는 본질적인 접근은 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수] 노 정부는 파병을 해주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미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노 정부가 얼마나 북핵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웅변해 줍니다. 강 교수님 말씀처럼 APEC에서 부시가 말한 것은 서면으로 안전보장을 해 줄 수 있다는 립서비스 정도였습니다. 사실 2차 6자 회담 개최와 관련된 협상과정에서 보면 선 핵 포기 후 체제보장이라는 기본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동시행동원칙도 협상대상이 될 수 있고, 2단계에 걸쳐서 협상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본질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요. 1단계에서 일단 안전보장을 선언하고 북이 핵 시설을 해체하고 검증을 거친 다음에 실제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얼마든지 새로운 조건과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라크 과병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무현 정부의 외교 안보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 교수] 안전 보장이라는 것도 북 정권이나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운영관 외통부 장관이 11월 26일 북에 대한 안전보장이 북한 정권이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어요. 설사 미국의 정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외통부 장관이 먼저 발표한다는 것은 민족의 이익을 한치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봐요. 또 미국은 다자간 안전보장을 하더라도 핵무기 불사용을 약속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그게 무슨 안전보장이냐라는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미국의 실체죠.

▶사회) 한미동맹과 미군재배치로 넘어가 보죠. 지난 해 한미동맹 재조정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해외미군재배치(GPR)를 당사국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미군재배치 의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지요.

[이 교수] 주한미군 재배치문제는 전세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재편 작업의 일환입니다. 미국은 이전부터 주한미군재배치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본격화 된 것이죠. 미국은 전진배치 전략에 의해서 아시아에 10만, 유럽에 10만, 기타 5만 등 모두 25만 명(이라크 주둔 병력 제외)의 해외주둔군을 유지하고 있는데 냉전 해체에 따른 미국의 군사 전략 변화와 전쟁개념의 변화로 이렇게 많은 해외주둔미군을 고정적인 지역에 배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가령 서독이 동서냉전시대에 최전선이었기 때문에 6만 5천 이상의 미군을 집중배치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유럽 주둔 미군을 동진시키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상당히 동북쪽에 치우친 형상이었거든요. 소련이 주된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의 전략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것으로 가면서 아시아 주둔 미군을 남쪽으로 이동 배치할 필요가 발생한 것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도 그 일환이죠. 주한미군 재편은 두 방향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지상전력 중심에서 해공군력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정적으로 배치된 미군이 아니라 다른 군사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주한미군을 이동 배치하는 이른바 신속 대응군(스트라이커 부대)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본질 상 미국의 세계전략적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한국의 반미 분위기와 노무현 정권의 등장에 대응하는 측면과 길들이기 측면도 있고, 그런 면에서 미군재배치 문제가 한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실장] 언론인의 입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한미간의 갈등, 또는 한국 내 반미의식의 고조 때문에 미국이 감축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냉전체제의 와해, 전쟁무기체계의 첨단화에 따른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가 주원인인데 이 점을 눈감아 버리고 마치 한미간 갈등 때문에 미국이 분개해서 그런 것처럼 침소봉대해 여론을 몰아가는 일부 보수세력과 이들을 대변하는 몇몇 수구언론의 정치적 의도는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2사단은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 그대로 갈 것으로 보이고 용산 문제는 전부 다 가느냐, 아니면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는 용산에 남겨놓고 가느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미 국방부 수뇌부 입장은 가겠다는 것이고, 주한미군 사령부는 용산에 남는 게 좋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정치적인 이유, 국민들의 안보불안심리 때문에 남아달라고 하니 미국은 용산 기지 터를 더 내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하면서 용산의 알짜배기 28만평은 그대로 놔두고 사령부를 붙잡아 놓는 게 어떤 이득이 있겠느냐, 국민감정에도 안 맞고 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행태를 보일 것인지 한심한 생각이 앞섭니다.

▶사회) 주한미군재배치가 미군의 역할을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하고 한국군은 대북 방위 역할 (더 정확히는 대북 방위에서 지상군 역할)을 전담하는 구도 속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전환이 의미하는 바나 한반도 평화에 미칠 영향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강 교수] 지난 50년간의 한미동맹과 달리 앞으로 한미동맹관계는 동북아가 그 중심 축으로 되는 신 한미군사동맹관계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앞으로의 새로운 한미동맹관계는 유연한 동맹관계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는 한미군사관계를 동북아 차원으로 확대한다는 것, 다시말하면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남한도 보조를 맞추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일본의 신가이드라인, 주변사태법, 유사법 등과 같은 구조로 나가도록 하는 게 미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한미군사동맹인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의 구상대로 간다면 민족의 생존과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대만에서 20여 만 명이 2008년까지 독립을 하겠다고 시위를 했잖아요. 대만의 독립은 곧 중국의 무력개입을 불러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미간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주한 미군이 동북아 지역군으로 재편되면 중국과 미국이 충돌할 경우 그 무력충돌의 최전선기지가 평택이 됩니다. 그러면 한반도가 중미의 대결장, 제 2의 청일전쟁터가 되어 우리 민족이 절단 나버리는 상황으로 물리게 되죠. 한미동맹 역할 재조정과 주한미군재배치는 바로 이런 위기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 재조정이 논의되는 지금이야말로 주한미군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교수] 주한미군 재배치는 결국 남한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내지는 봉쇄 전략의 거점이 되고 동북아 지역군의 중심 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에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당장 주한미군의 해&#8228;공군력 확대는 직접적으로 평택을 MD의 거점 기지로 즉 패트리엇 미사일, X밴드 레이더 기지로 건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핵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 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MD체제를 매개로 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는 대중국 봉쇄 체제인데, 그것은 강 교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북아의 신 냉전체제를 가져오는 단초가 되고 구조화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아주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 실장] 주한미군 전력의 대폭 증강돼 평택 쪽에 집결하고 스트라이커 부대가 들어오고 하면 당장 북한이 직접적인 위협을 느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와 중국의 관계가 미



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중 관계도 괜찮고, 중국의 경제발전이나 올림픽 개최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이 가능한 한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런 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문제 등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될 때 우리가 중간에서 난처해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전환이 명확하게 결정된 것인가 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방부나 관련 당국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만일 주한 미군이 동북아 지역군으로 역할을 확대한다면 주한미군 사령부와 주일미군 사령부를 합친 동북아 사령부를 만들고 그 사령부를 평택에 둘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리되더라도 일본의 오키나와 등에 사령부를 두고 평택은 일종의 전진기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교수] 미군의 동북아사령부가 오키나와에 있든, 하와이에 있든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요. 평택은 대중국 봉쇄를 위한 MD망의 거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며 제주도 화순항도 가능한 위쪽에 전진기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미군 해군기지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코스카에 미7함대가 있는데 조금 치우쳐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조금 앞쪽에 새로운 해군기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QDR 2001을 보면 동아시아연안국을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지역의 하나로 꼽고 있는데 화순항은 이런 미국의 대중국 해상 봉쇄 기지의 하나로 상정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회) 미국의 군사전략적 필요와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주한미군재편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장 교수] 지금 주한미군에 대한 본질적 접근을 해야하고 장기적인 전망 하에 주한미군 재배치나 철수, 자주국방 문제나 남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정책을 펴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는 전혀 그게 없다는 것이 큰 문제지요. 미국의 전략보고서들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구도, 미국은 20~30년의 장기적인 구도 속에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평택에 기지를 만들어 주고 한 걸음 한 걸음 미국의 구도에 끌려 들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있어요. 노 정부 외교안보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적인 전망과 전략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그저 현상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뺄하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 민족의 미래를 그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한미군 불가피론은 북한 전쟁 위협론, 남한 군 열세론, 동북아 세력 균형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다 허구라는 거죠. 첫 번째는 90년 이후 탈냉전기기에 한반도 전쟁위기 8번 중 서해 교전을 제외한 6번을 미군이 주도했으니까 북한 전쟁 위협론은 허구죠. 두 번째 남한 군 열세론은 린스펠드 국방장관도 남한 경제력이 북의 30배나 되고 남한의 대북 군사역제력이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미국의 강요에 의해 일본이 군사대국화 되고 남한도 자주국방이라는 명목 하에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구도는 동북아 세력균형을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주한미군이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이라는 점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수]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전환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벗어난다는 점도 제

기해야 합니다. 노 정부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외교안보정책으로서의 평화번영 정책이 그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해서는 남북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이것이 만주, 시베리아와 연결이 되고 동북아 평화에 기여해야 하는데, 미국이 그것을 허용하겠어요? 현재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미국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면서 목표는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이니 굉장히 모순되죠.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장기적인 정책 전망 없이, 즉흥적으로 땀질하는 식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외교나 안보 문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소신을 믿고 싶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갔다와서 동북아는 힘이 없으니까 부랑아의 가랭이 사이를 기어간 한신의 심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볼 때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질질 끌려다닐 것 같고 특히 외교안보팀 참모들은 그 어떤 비전과 철학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실장]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등하고 수평적인 한미관계를 강조하다가 대통령이 된 뒤 너무 바뀌었습니다. 특히 첫 한미정상회담 때 본인도 나중에 오버한 것 같다고 자인할 정도로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굴욕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에 대처하는 데서 노무현 정부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평소에 한미관계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 무디스의 신용평가 등 경제적으로 미국이 압력을 가하면 어찌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앞섰을 것이고, 여소야대 등 정치적으로 극히 취약한 기반, 언론과의 관계도 불편한 상태여서 여러모로 고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부시 정부의 의도적인 길들이기와 이에 맞장구를 치는 보수세력의 공세에 밀렸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연구 검토해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다든지 장기적인 비전이 있었다면 사안마다 적절히 대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중심을 못 잡고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죠.

[강 교수] 한미관계에서의 노 정부의 구조적 제약조건에 대해서 이원섭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노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을 지적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노무현 정부는 대미관계에서 자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촛불시위라든지 반미정서라든지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하겠다는 노무현 후보에 대한 엄청난 지지가 대통령 당선에 원동력이었죠. 또 하나는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대미 자주적인 정책을 출발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북관계도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고 작년의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동북아 경제 협력체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김대중 정권이 닦아 놓은 거죠. 반미운동, 촛불시위, 여기에 김대중 정권 유산, 남북공조, 동북아 협력체의 출발, 북일 정상 회담 등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노무현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자주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굴욕주의, 대미 구걸외교로 일관했다는 점은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 노 정부가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응하여 이른바 자주국방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일부 친미보수세력들은 이것이 한미군사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노 정부에

대한 정치공세를 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의식해서 국방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으로, 70년대 자주국방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교수] 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주국방을 해야 하고 언제까지나 안보를 미군에 의존할 수 없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미국으로부터 MD 무기를 구입하는데 이는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이 실장] 노 대통령이 취임 뒤 여러 차례 자주국방 이야기를 했는데 투철한 인식 하에서 한 이야기인지 회의가 듭니다. 자주국방으로 가면 미국이 불이익을 줄텐데 그것을 감내할 충분한 각오나 대처방안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후보 때부터 이야기를 보면 대통령으로서 미군을 남쪽으로 빼다, 감축한다 할 때마다 보수세력들이 들고일어나고 안보불안심리를 부추기고 온통 나라가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되니까 어차피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체적인 국방능력 향상과 자주국방 프로그램을 세우라는 의미로 이야기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추진해야 할 국방부에서 상당히 왜곡시킨 감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이 후방으로 빠지고, 미군 임무를 넘겨받으려면 그만큼 전력을 증강해야 하고, 첨단무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쪽으로 잘못 몰고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강조하니 국방부가 기회다 싶어 평소의 숙원사업, 민원사항을 전부 들고 나와 이참에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욕심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나 남북군축, 한미연합작전 개념의 재정립 등과 같이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본질적인 요건은 도외시한 채 국방비 증액, 첨단 장비 도입 등 군비증강 쪽으로만 가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 교수]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국방부나 홍보처에서 나오는 모양인데 자주국방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죠. 자주국방은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의 수립 운용, 즉 대미 군사자주권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걸림돌은 정보력을 미국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점과 독자적인 작전지휘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국방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군사비 문제는 아니죠. 한국군이 지상군의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결과 우리 육해공군의 비율은 8:1:1로 기형적인 군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 같은 구조가 바뀌지 않고서는 작전정보능력의 향상은 기대할 수 없죠. 또 한국군의 대북 억지력은 지금 현재로서도 과잉 억지력입니다. 남한의 한해 군사비가 150억 달러, 북한은 14억 달러밖에 안되죠. 육군 중심의 기형적 군구조와 대북한 과잉 억지력에서 봤을 때 군사비 증액을 통한 자주국방론은 전혀 설득력이 없죠. 새로운 한미동맹 역시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 속에 한국군이 종속,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미 예측적 틀이 바뀌지 않는 한 설사 군사비를 높인다 하더라도 군사적 자주권 확보로서의 자주국방은 불가능하고 MD체제 편입 등 대미 예측의 심화만 초래될 뿐이에요. 이런 점에서 협력적 자주국방은 언어의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야죠.

[이 교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만 해도 우리 군의 퇴행적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90년 동아시아 전략구상의 주한미군 3단계 철수 안은 2000년까지 주한미군이 상징적인 수준

만 남고 철수하고 전시작전권도 우리가 환수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북한 핵문제를 빌미로 7천명을 감축하는 1단계에서 끝났지만 말이죠. 벌써 10여년 전에 전시작전권 환수 계획까지 추진했는데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크게 발전한 지금도 시기상조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현 중속적인 한미연합지휘체제 하에서는 한국군이 해공군력을 늘리더라도 그것은 자주국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대양해군을 위해 이지스함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는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이자 미국의 통제 하에 일본과 같이 협력작전을 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강 교수]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가 나오면 에이웍스나 정찰위성의 도입을 통해 정보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변합니다. 그런데 에이웍스나 정찰위성을 갖춘 나라는 몇 나라가 안 된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논리는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일 뿐입니다.

[이 교수] 정보력의 미군 의존이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 근거로 이야기되는데 북한은 독자적인 정보력이 있어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던 80년대 초반에도, 제가 정보 관련 부대에 근무해 아는데, 북한 지역의 무선 통신을 다 도청할 수 있었어요. 대북 정보력 강화사업으로 백두사업, 금강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 한국군은 이미 정보력에서도 북한에 비해 월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회) 노 정부의 자주국방은 대안이 아니며 오히려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대안으로 한미동맹의 강화, 유연화, 폐기 어느 쪽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강 교수] 한미군사동맹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한미 간 수평적인 우호관계는 지속될 필요가 있겠죠. 한미군사동맹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북한)의 무력공격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체결되어 50년이나 한미관계를 규율해 왔습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 자신에 의해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대단히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군이 있을 필요가 없고, 거의 가능성이 없지만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남한 군사력이 대북 초과영역지력이나 주한미군의 지원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지요. 냉전 종식 이후 지금까지 두 번의 서해교전 그리고 91년, 94년, 98년, 99년 2002년, 2003년 6번의 전쟁위기가 있었는데 서해교전은 남북이 다 잘못된 것이므로 전쟁위기를 주도한 것은 미국입니다. 즉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 주범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한미동맹과 미군 주둔 때문에 한반도는 전쟁 위협에 놓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군사동맹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 실장] 이전에 비해 북한 위협론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의식수준을 볼 때 단계적으로 가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미군이 주둔하는데서 오는 폐해를 듣자면 많지만, 한미 군사동맹 폐기를 현실적 과제로 논하려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전시켜야 합니다. 우선 현안인 북미간의 갈등을 푸는데 우리의 주도성을 높여 나가야 하고 주한미군의 역할 자체도 점차 바뀌어야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시킬 여건이나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 교수] 주한미군 재배치 자체가 한미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고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철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이용했어야 하는데 거꾸로 미국의 정책에 끌려 들어가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이른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에는 미래의 정책구상은 하나도 없고 미국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어요. 주한미군 재편은 90년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계획 등을 참조하되 주한미군의 감축과 역할 변화에 대한 우리 나라 나름의 중장기적 구상을 갖고 대응하고, 주한미군 기지문제에서도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도적으로 제기해 나갈 수 있는 호기였는데,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현 노 정부의 평화변영정책에는 평화군축,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군축,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등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없어요.

[강 교수] 국민들의 경우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또는 즉각 철수에 상당히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주류인 친미사대주의세력, 자발적 예속주의자들이 주한미군 철수의 위협을 부풀림으로써 국민들의 왜곡된 친미의존 및 반공보수 심리를 자극하여 반사적인 정략적 이익을 노리는 경향도 강하다는 지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국민 여론이 확대된 것은 사실인데요. 친미보수세력의 논리도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등 주한미군 철수에 유리한 여건 조성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교수] 이른바 주류세력들 즉 한나라당과 친미보수언론이 의회와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 친미사대적 안보 논리가 아직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진보적 언론, 또는 인터넷 매체들에 의한 반박논리가 아직은 전파력이나 영향력에서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우리사회에서 미국과 주한미군을 보는 시각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 십년간 미국과 주한미군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맹목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지요. 특히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젊은 세대의 성장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강 교수] 평화체제는 남북간에 이룩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군축이 진행되고 주한미군의 전쟁 주도적인 성격이 바뀌어야 하고 북한이 일본이나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그리하여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가 평화체제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체제는 남북 간 노력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풀어야 할 문제이죠. 김대중 정권 때,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2001년 물밑 접촉에서 2차 정상회담 시 남북간에 평화선언을 하기로 하였죠. 그런데 3월 1일 한미정상회담을 하자마자 김 대통령이 미국사람들 앞에서 한반도 평화선언 안 하겠다고 180도 입장을 바꾼 거예요. 남북 평화선언조차도 미국이 제동을 걸면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남북이 평화선언, 전쟁반대 선언을 하면서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그것을 동북아협력안보수준으로 넓히는 노력은 필요한데 여기에서 핵심은 미국의 참여입니다. 주한미군 등의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평화체제로 나아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보나 주한미군에 관해서는 거의 성역화 되어 있어 쉽게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위협이 진짜 주범이 누구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 남북한의 군사력 문제 등 소위 냉전의식에 갇혀 맹목화된 믿음에 대해서 그 진실을 대중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언론과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해나가야 합니다.

시민운동진영도 미국 문제나 남북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접근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북핵 문제란 스무살 장정과 세 살짜리 싸움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양비론은 맞지 않습니다. 또 시민운동이 부문운동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연대나 공동 행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 남북관계로 넘어가 보죠. 계속되는 한반도 위기를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서 돌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 실장]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정권 출범하자마자 대북송금특검을 수용한 것은 제일 납득이 안 가거든요. 너무 국내정치적 측면으로 남북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노 정부가 말로는 평화번영정책으로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기반을 다 갉아먹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특검 수용에서 6.15공동선언을 지키겠다는 남쪽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고 특히 한미정상회담을 보면서 남쪽정부의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서는 남북문제가 악화되면 안보나 경제에서 타격이 올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제는 큰 요소는 아니지만 남쪽하고 교류협력을 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철도연결,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등 기왕의 경제협력은 꾸준히 해나가지 않겠는가 합니다. 북핵 문제 등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남쪽의 한계가 뚜렷하므로 기대치를 낮추어 그 한계 내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려고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이 교수] 노 정부 들어 대북 정책이 후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죠. 남북정상회담 이후 나름대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남북이 가지고 있었는데, 노,부시 정상회담 이후 완전히 주도권을 상실하고 미국에 끌려가게 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번영정책에 관한 정부의 설명을 보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됨에 따라서 남북관계, 정부차원의 경제협력들을 한다고 전제를 달아놓고 있어요. 이것은 스스로 행동반경을 좁히고 손발을 묶는 정책이고 핵문제를 남북문제와 연계시킴으로 인해서 남북관계를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강 교수] 국내 정치적인 정략 때문에 대북 송금특검을 수용한 것은 통일정책이 노 정부의 정책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보여줍니다. 야권과의 공조를 위해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민족 정책을 절단내는 특검을 수용했다는 것 자체가 햇볕정책을 계승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봐요. 두 번째는 한미정상회담 때 굴욕적인 합의를 했고 특히 핵 경험 연계정책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6.15 공동선언 3주년 기념일에 행사 한번 하지 않고 대통령이 골프치러 다니는 것을 봤을 때 통일정책은 아주 낮은 위치에 처해 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권 임기 내내 자발적인 통일정책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힘들습니다. 민족운동진영이 노무현 정부를 견인하고 압박함으로써 통일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는 길,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 남쪽이 군사비 증대, 한미동맹 강화로 나가고 있는데 남북관계에 대한 북쪽의 대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강 교수] 북한으로서는 별로 카드가 없습니다. 전기문제, 식량문제로 힘든데 지금 북한의 무역고 중 남쪽 수출이 1위일 정도로 교류협력이라는 제한된 분야에서이긴 하지만 남북관계가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노무현정부의 대미 종속적 자세나 군사분야에서의 대북 대결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지속, 진전시킬 것으로 봅니다.

[이 실장] 국제관계에서 자기편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남북관계마저 경색시킨다면 여러 어려움이 따르겠지요. 만일의 경우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강행하려 할 때도 남한이 앞장서서 막아줘야 그나마 안보환경이 유지될 것이고, 평화와 협상을 절실히 원한다는 이미지를 위해 중국, 러시아도 우호세력으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남북관계는 기대치를 낮춘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끌어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사회) 향후 정치지형에서 총선의 의미가 클텐데요, 총선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교수] 기존 정치권이 지역구도 속에서 지속되고, 노무현 정권이 소수파로 남게 된다면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남북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부시가 재선되면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어렵게 되겠지요. 진보진영이 의회에 진출하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냉전수구세력이 지금처럼 국회를 장악하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과 범평화개혁세력이 다수가 될 수 있느냐는 보다 큰 고민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실장] 총선 결과는 변수가 많아 점칠 수 없는 상황인데, 노 대통령 치지에서는 그 동안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 정치적 소신을 제대로 펴지 못했다고 느낄 법하죠. 사실 거대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철저히 견제하니까 힘을 쓰기 어렵다는 것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현 의석 분포가 바로 국민의 뜻이라느니 주장하지만, 사실 애초부터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한때 이회창 후보의 당선이 따는 당상처럼 여겨지고 대세몰이를 하자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이 한나라당에 떼지어 입당해 줄서기를 하는 바람에 그리된 것이죠.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부패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높아졌고 정치개혁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예상합니다.

진보진영은, 이번 총선이 1인2표제, 정당명부제 투표로 치러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의회 진출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몇몇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통해 진보진영에서 일정한 의석을 확보한다면, 비록 의석수로 캐스팅 보트 역할은 못한다 해도 논리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고, 의회라는 제도권에서 건강한 논의를 이끌어 가는 구실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함

니다.

[강 교수]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문제가 어느 정도 파헤쳐지느냐가 총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만 영남 한나라당, 호남 민주당 식으로 지역적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남북경제협력기금도 80%를 줄이고 있는데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문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또 하나는 정당명부제죠. 민주노동당이 의석을 얻고, 또 울산이나 창원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계급정당, 진보정당이 의회 제도권 내에 진출하고 지난 대선 때도 권영길 후보가 국민에게 진보정당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 것처럼 다음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상당한 원내 진출을 예상할 수 있고, 의회 활동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를 일정부분 선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가 실정에 따른 국민지지 상실을 집시법개악, 테러방지법 제정 등 민중 탄압을 통해서 돌파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주평화운동진영이 새해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교수] 2003년은 한반도 위기의 해, 전쟁의 해라고 했는데, 전쟁이 안 일어난 것은 평화세력들의 많은 노력들,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 덕택이었습니다. 국민은 한반도의 위기상황과 부시의 일방주의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의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특히 주한미군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은 민족자주운동의 성과라고 봅니다.

[이 실장]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진전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몇 가지 주문을 보탠다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보수세력들이 물리력, 정보력, 언론 등을 장악하고, 오랫동안 우리사회의 주류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 못지 않게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교한 논리도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동단체의 고인밀 텐데 총론은 강한데 각론에 들어가면 연구하고 참여하는 분이 한정돼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소수 몇몇 분이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론 뿐 아니라 각론에서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 동안 잘 몰랐거나 타성에 젖어서 금기시 해온 부분들을 하나하나 깨는 노력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주체적 역량을 키우는 것 못지 않게 객관적인 현실, 국민들의 인식 수준 등을 감안해 반감을 사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는 기술적인 측면까지 고려했으면 합니다

[이 교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크게 변했고 국제정세도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반세기 이상 가져왔던 고정관념과 관성적 사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런 고정관념과 관성적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강 교수] 노무현 정부는 자주 민주 민중 지향적인 과제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데 기대이하라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민주라는 지향에서는 진전을 기대했는데, 민주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집시법 개악안,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반민주적인 악법인



테러방지법을 국회 차원도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시도를 하니까 노무현 정부의 정체성에 근본적인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죠. 자주평화운동이 총론을 넘어 각론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평통사 등이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안을 낸다든지, 자주국방의 문제점을 국방부하고 토론한다든지, 그간 국방, 안보 등의 각론 부분은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영역이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전문적인 부분까지 건드리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초보단계니까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남북관계나 미국문제에 관해서 운동진영이 민족운동, 민중운동, 시민운동 진영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남북관계 등에서 민족자주진영과 민중 운동진영은 그래도 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민운동진영과의 연대는 잘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사회)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 론◆

대북한 공격력 강화와 동북아  
군사패권강화를 노린 미군재배치

미국 코넬대 교수 서 재 정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월 25일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에 주둔 중인 미군의 재배치를 본격 시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작년 4월 시작한 미대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를 통해 논의되던 주한 미군 재배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러한 미군의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북에 대한 미군의 공격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안보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일대에 대한 미군의 개입능력을 강화하여 미국과 아시아 사이의 군사력 불균형을 가속화하고 군비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21세기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의 평화)를 이루려는 구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미군 재배치는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21세기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대북 군사력 강화

미국은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면서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따라 오산 비행장과 평택항을 통해 이동이 용이한 점을 고려해 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신속기동군의 타격 목적지가 반드시 동남아시아 등의 해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신속기동군이라는 군사조직의 변화는 변화된 무기체계와 작전개념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신속기동군의 한강 이남 배치는 대북 군사력 강화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왜 미군의 후방배치가 대북 공격력 강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우선적으로 지적되어야 할 점은 미군의 후방 배치가 미군의 생존능력을 높인다는 사실이다. 1994년 북핵위기가 한창이었을 때 미국이 군사력 사용을 검토했으나 엄청난 피해가 예견되기 때문에 군사작전을 포기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북한이 전방에 배치해 놓은 1만여기의 장거리포가 미군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 사용을 포기해야 했던 것이다. 특히 서울 이북에 배치되어 있는 미2사단을 북의 장사포로부터 보호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세계최강 미군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것이고, 북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선제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전판이었던 것이다.

이후 전방에 배치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강구되었다. 특히 북의 장거리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배치되었으나 이것이 이상적으로 기능하더라도 북의 초탄 2-3발은 어쩔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북의 포대를 공격할 다연장포 등 공격용 무기도 증대됐으나, 1만여기의 장거리포를 선제공격으로 한꺼번에 무력화시키기 전에는 전방에 배치된 미군을 보호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의 장거리포가 미치지 못하는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평택이 미 2사단의 재

배치 지역으로 주목받는 이유이다. 이러한 재배치는 미군의 생존성을 높이므로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독트린 이행이 용이해진다. 한편 북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선제공격을 억제할 수단의 하나를 잃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점은 사실 미군의 후방 배치라는 위치변화보다, 군사작전이 공세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부시 행정부가 선제공격을 공식적으로 채택, 필요하다면 예방전쟁 차원에서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고 정권교체와 영토점령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침략적 전쟁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상대로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공격적 정책과 전략을 이행하는 군사전술도 공격적이다. 미군은 적군과 전선을 형성해 전면전을 벌이는 대신 적군의 지휘부를 최우선 순위로 공격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즉 이라크전쟁에서 충격과 공포라고 불렀던 작전과 같이, 전쟁 초기에 막강한 공군력과 미사일 능력을 동원하여 적의 지휘부와 지휘통제 시스템을 파괴,교란시킨다는 전술이다. 수뇌부와 중추신경계를 파괴하여 적군을 마비시킨 후에도 적군과 일일이 정면전을 하기보다는 우월한 기동성과 정보능력을 이용하여 핵심적인 거점을 장악하는 첨단 기동전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격적 전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평택이 유리하다. 현재 휴전선을 따라 배치된 군사력 밀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휴전선을 돌파하는 전통적 기동전을 구사하는 것은 북한군이나 한미연합사나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동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중과 해상으로 군사력을 후방에 투입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배치되어 있는 미2사단은 M1 에이브라함 전차나 브래들리 장갑차와 같이 무겁고 공수가 거의 불가능한 무기체제로 무장되어 있다. 미군 재배치가 완료될 시점이면 미2사단 휘하 2개 여단은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같은 최신에 무기체제로 무장된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재편될 것이다. 이 여단의 특징은 가벼운 무기체제로 무장이 되어 C17 수송기나 군함으로의 수송이 쉽다는 점이다. 공군 기지와 항만을 끼고 있는 평택은 북한의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타격한다는 작전 계획을 이행하기에 이상적인 기지인 셈이다.

## 군사혁신

전쟁기술의 혁명은 점차 크기나 무게보다는 기동성과 신속성으로 규정된다. 영향력은 정보로 측정되며, 안전은 은폐술로 증대되고, 군사력은 정확한 유도무기의 긴 포물선을 따라 투사된다. 이러한 혁명은 우리 국가의 능력과 우리 국민의 기술, 우리 기술의 우월성과 완벽히 일치한다. 평화를 수호하는 최상책은 전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 1999년 9월 연설)

부시 대통령이 선거유세 기간에 했던 위의 연설은 미군 재조정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미국은 양보라는 질을 앞세우는 방향으로 군을 개혁, 냉전시기의 구식군을 21세기 최첨단군으로 환골탈태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앤드루 마샬 국방장관 고문이 내세운 군사혁신이라는 화두는 이제 바야흐로 현실이 되고 있다. 최첨단 과학기술과 새로운 작전개념, 이와 걸맞는 군사조직이라는 삼박자를 결합하여 군사력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군

사혁신은 럽스펠드 국방장관의 진두지휘 아래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미군 개혁은 이미 2001년 발표된 4개년 국방검토에 그 청사진이 제시됐으며, 수 차례의 위계임에서 검토를 거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실전에서 검증 받은 후 힘을 받아 탄력 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 군사혁신은 우선 발달된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무기체계 개발에 도입하여, 정확하면서도 살상력이 높고 이동배치가 용이하며 아군의 생존성을 높여주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신 무기체계 중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미사일 방어체제이며, 육군용으로 개발된 스트라이커 장갑차군이다. 공군은 초음속폭격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음속의 8배에 달하는 속도로 날게 될 이 폭격기는 5.5톤의 무기를 싣고 미국 본토에서 발진해 전 세계 어느 곳이나 2시간 이내에 치명적인 폭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에 비해 현재 미군이 운용 중인 B-2폭격기는 전세계 폭격이 가능하지만, 이라크 전에서 보듯이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를 이륙해 폭격이 이뤄지기까지 37시간이 걸렸다. 1)

해군은 적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항해속도는 향상시킨 신형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또 지난 12월 지하사령부와 통제센터, 숨겨진 무기 창고를 파괴하기 위한 병커버스터 소형 핵무기 개발 연구에 750만 달러, 초정밀 공격에 유용할 것으로 평가되는 저준위 핵무기 연구에 600만 달러를 각각 배정하는 등 신형 핵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이러한 첨단무기 개발과 함께 작전개념과 군대 조직도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있다. 적과의 대치선을 중심으로 전선을 형성해서 싸우는 기존의 개념을 버리고, 적의 지휘부와 지휘통제체제를 우선적으로 공격한다는 작전으로 이행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덕분에 적군에 대한 정보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적 타격에 쓸 수 있는 정밀무기와 실시간 정보시스템의 통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보력과 살상력, 기동력의 우위가 주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작전개념은 정보,정밀,기동전이라고 할 만하다. 이제 전쟁은 전선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의 핵심부와 후방, 측면 등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타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군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적군을 단시간에 와해시킨다는 것이다.

미군 구조도 이에 걸맞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스트라이커 여단이다. 기존의 육군은 M1 에이브라함 전차와 브래들리 장갑차 등으로 중무장된 부대와 이러한 중무기가 없는 경보병으로 양분되어 있다. 그러나 중무장 부대는 신속한 전개가 불가능하고 경보병은 신속전개가 가능한 대신 적의 화력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여 등장한 것이 잠정여단전투팀으로 이 부대는 신속전개가 가능하면서도 적의 화력을 막아 낼 수 있고 적을 제압하는 화력을 보유한 부대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여러 종류의 스트라이커 장갑차 계열 무기체계로 무장되었고, 군인 수는 기존 여단보다는 작으나 실질 전투력은 더 강하다. 이러한 군 조직의 변화와 함께 중요하게 등장한 것이 합동전 조직이다.

미군은 이렇게 첨단무기+신작전+신조직의 삼위일체로 21세기 첨단군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미군 재배치도 이뤄지고 있는데, 그 특징은 △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하부구조 면적의 축소 △동맹국을 보호하고 적국을 막아내기 위한 해외주둔의 지속 △유사시 필요한 장비와 보급물의 사전배치 △세계적 차원에서의 군사력 운용 △유사시 필요한 지역에 군사력 집중 능력 등이다.3)

다시 말해서 해외주둔 미군 수와 기지 면적은 축소하되, 미군의 기동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여 필요한 지역에 군사력을 신속하게 집중시킨다는 구상인 것이다. 이와 함께 무거운 무기체계와 보급물은 현재 한반도 해역과 인도양 등에 배치해 놓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전에 전진배치, 미군의 이동과 집중을 쉽게 한다는 방침이다.

#### 주한 미군 재배치와 2004년 미군 기지 건설예산 4)

주한 미군 재배치는 이러한 구상 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캠프 험프리(평택기지)내 군시설 신축예산안을 이미 승인했다. 승인된 예산안은 험프리 기지 병영 건설에 3천6백만 달러 이외에도, 오산 공군기지에 113 세대용과 111 세대용 가족 숙소 2동을 신축하는데 3천570만 달러와 4천476만 5천 달러를 각각 책정했다. 오산 공군기지는 이외에도 156실 규모의 기숙사 2동을 건축하는데 1천6백63만8천 달러와 1천502만4천 달러를 배당했다.

해외주둔 미군 전문지인 성조지의 지난 12월12일 보도에 따르면 캠프 험프리에서 200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690만 달러 규모의 영내매점 건립공사가 지난 12월10일 시작됐고, 장병 408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막사 착공식이 열렸다. 2004년 오산 평택 지역의 기지 건설비로만 1억4천813만2천 달러라는 예산이 책정되었고, 캠프 험프리에서 멀지 않은 CP 탱고의 지휘통제 (C4I) 시설의 강화에 1천260만 달러, K-16공군기지(성남)에는 4천만 달러가 할당되었다. 군산 공군기지에는 7백여만 달러를 들여 비행기 격납고 강화작업을 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의 또 다른 중심기지(hub)가 될 대구 부산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다. 적어도 2004년에는 부산 지역에서는 신규 건설작업이 없을 것이며, 대구 지역에만 약 3천만 달러가 배정됐다. 이중 캠프 캐롤에 2천만 달러를 들여 미혼자 막사를 짓고, 캠프 워커에는 1천2백만 달러 규모의 막사를 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두천에도 1억 달러 이상이 배당되는 등 이 지역이 찬밥 신세만은 아니다. 동두천에 있는 캠프 케이시에 4천1백만 달러와 4천5백만 달러를 들여 막사 2개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이에 인접한 캠프 호비 막사 건설에 2천5백만 달러가 배당됐다. 이것은 한강 이북에 있는 주한 미2사단 예하의 군소 기지를 모두 통합해 의정부와 동두천으로 옮기겠다는 계획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에서는 용산에 가족용 숙소의 교체 건설 (replacement construction) 명목으로 310만 달러, 미군 교육시설의 MS 교체로 3천168만3천 달러가 계상됐다.

이상과 같은 내년 군사시설 건설예산 배분실정을 볼 때 미군이 평택을 중심으로 미군 재배치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 잔류부지 면적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를 한강 이남으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주한미군이 되풀이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이 있는 것이다. 5)

미군의 입장에서 이제 잔류부지는 큰 고려사항이 아닐뿐더러 이 문제를 협상압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은 군사혁신이라는 신개념에 입각해서 군 개혁과 재배치의 길로 성큼 나서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구상대로 미군 군사혁신과 재배치가 완료되면 미군은 대북 전쟁력도 강화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개입 능력도 증대, 토끼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는 셈이다. 반면 한국은 한반도 위기고조와 아시아 안보불안이라는 2중고를 안게 될 것이다. (2003년 12월26일 작성)

- 1) 미, 초음속폭격기 개발 추진, 유재훈, 한겨레신문 2003년 11월 28일
- 2) 부시, 차세대 핵무기 연구 허용 법안 서명, 워싱턴 AFP/연합뉴스 2003년 12월 2일
- 3) Jim Garamone, Global Military Postures Part in Transformation, American Forces Press Service, Washington, December 2, 2003. [http://www.defenselink.mil/news/Dec2003/n12022003\\_200312022.html](http://www.defenselink.mil/news/Dec2003/n12022003_200312022.html)
- 4) 미 국방부 2004년 군사시설 건설예산안
- 5) 황대일, 미, 연합사 한강이남 이전방침 재통보: 미의회 오산기지 군사시설 신축예산안 승인, 연합뉴스 2003년 12월 14일.

◆세계평화군축운동 동향◆

평화와 군축을 위한 아시아 연대의 모색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조 희 연

지난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오키나와 퍼시픽 호텔에서 제5회 아시아태평양 평화군축공생 국제회의(PDSAP)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중국, 필리핀, 한국, 미국, 러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파키스탄, 인도 등 12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 참석자들과 일본 및 오키나와의 참석자들,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회의는 평화가 중심주제였다. 이 회의에서는 아시아로부터의 평화의 문화, 국제적 공생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군사주의, 인권, 경제, 환경 등의 주제로 섹션이 만들어져 각 국에서 온 참석자들 간에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 측에서는 리영희 선생을 비롯하여, 강문규 전 YMCA사무총장, 오재식 월드비전 전 대표,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신혜수 전 여성의전화 대표, 오재일 전남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일본 측에서는 이토 나리히코 중앙대 명예교수, 도이 일본 전 사민당 당수,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평화활동가들이 참석하였다.

PDSAP모임은 각 시기에 평화와 관련된 현안을 긴급하게 논의하고 초국경적 연대의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92년부터 시작된 회의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 차원의 논의 테이블과는 별개로, 시민사회운동과 지식인, 개혁적 제도정치세력의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평화를 향한 실질적인 행동 공간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첫 모임은 92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 사이에 열렸다. 90년대 초반은 한편에서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냉전이 종식되어가던 시기이기도 하였는데, 이 회의는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평화, 특별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군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첫 모임에는 당시 호주 수상, 송건호 선생, 남태평양을 비핵지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최초로 경주하였던 뉴질랜드 데이비드 랭게 수상이 참석하였다. 1994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회 모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바도 있다.

5회 모임의 개최지인 오키나와는 일본의 내부 식민지이자 일본 미군기지의 75%가 몰려 있는 평화운동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화와 군축문제의 현장성 때문인지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활동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오키나와를 비롯한 미군기지의 문제를 핵심쟁점으로 부각시켰다. 마침 린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이 이라크 파병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키나와를 방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키나와의 운동가들은 회의에 참석하는 일방, 린스펠드 방일 반대데모를 하고 있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북핵위기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미군기지 문제, 오키나와를 비롯한 아시아의 미군기지 문제 등 아시아 평화의 이슈들이 다루어졌다.

전체모임 외에 3개로 나뉘어진 분과토론에 필자도 발표자로 참여하였는데, 필자는 무장한 세계화에 반대하는 반부시투쟁과 평화운동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잠깐 내용을 소개하자면, 현단계 지구촌 사회운동은 세계화의 도전과 군사주의의 도전이라고 하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 강화되고 세계화에 따른 모순이 격화되면서 세계화는 보다 군사적 성격이 강화되는 이른바 무장한 세계화(armoured globalization)로 전개되고 있고 이것의 상징적인 현상이 바로 부시행정부의 공세적 군사주의노선이다. 이런 점에서 전 세계 사회운동에서 반부시투쟁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데, 필자는 반세계화 투쟁과 반군사주의 평화투쟁이 결합하는 상징적 투쟁으로 2004년 부시낙선운동을 전개하자 &#43091;고 제안하였다. 부시낙선운동을 세계화에 대응하는 초국경적 연대의 대표적인 투쟁사례로 전개하자는 것이었다.

2박 3일 동안의 논의는 최종선언문에 대체로 요약되어 담겨졌다. 그런 점에서 최종선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 보기로 하자. 먼저 세계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군사력에 대한 맹신을 포기하고 평화의 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엔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각 나라들이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나아가 핵무기의 전면적 폐기를 목표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성취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평화와 안전이 군사적 동맹이나 외국군대의 주둔에 의해 달성되지 않는다는 경향을 반추하면서 한반도와 일본으로부터 미국군대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 선언문은 최근의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화 등 일련의 우려할 만한 현상을 염두에 두면서 일본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촉구를 담고 있다. 먼저 일본정부에 대한 촉구를 담고 있는데, 일본제국 정부의 침략과 전시정책에 의해 아시아 민중들에게 거대한 참상이 초래되었음을 환기하면서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일본의 평화적 성격을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보수적 흐름을 경계하면서 9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1980년대 나카소네 내각의 출범 이래로 우익운동이 강화되면서 일본헌법의 개정운동이나 일본 교과서 파동 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이 공개화 된 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최근 이시하라 신파로 동경 지사의 망언으로도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일본의 민주주의,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것인 바 일본의 민주주의운동이 강화되기 위한 국제적 관심이 필요함을 천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 및 지구촌 평화 및 인간안보 자체가 부시행정부의 선제공격정책을 포함한 공세적 군사주의노선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2004년 미국 대선에서 부시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한 부시낙선운동이 국제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가 6자회담 개최 등과 맞물려 관심을 모았는데, 최종선언문에서도 6자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촉구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정책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회의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중앙대학 이또 나리히코 선생이 한국측 참석자들을 예외적으로 저녁식사에 초대하였다. 이또 선생은 70,80년대 광주항쟁의 진상규명, 김대중 구명운동 등 한국 민주화운동을 일본에서 헌신적으로 지원했던 분으로서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인물이다. 저녁식사에서 이또 선생은 6회 PDSAP모임이 한국에서 열렸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이 회의의 재정적, 실무적 부담을 크게 짊어졌던 오키나와 전교조 전 회장이 배석하였다. 예외적인 저녁식사 모임은 6회 대회의 한국개최라는 무거운 희망의 짐이 한국으로 넘어가는 자리였던 셈이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나는 전날 제일교포 목사의 안내로 찾아갔던 오키나와 평화공원에서 받은 작은 충격과 소망을 연신 떠올리고 있었다. 그것은 16만에 이르는 오키나와 민중을 살해한 적군의 이름도 평화공원의 묘석에 새겨 넣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남다른 평화감수성을 우리민족이 가질 수 없는가 하는 소망이었다.

## 일미동맹의 군사적 거점 오키나와의 반기지투쟁

- 평화인권자립을 향해서 -

이 글은 제5회 아시아태평양 평화군축공생국제회의(PDSAP)에서 오키나와 대표 아라사키 모리테루 씨(오키나와 대학 학장)가 연설한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

반세기 이상에 걸친 전후 오키나와 민중의 역사는, 일관되게 미군기지와의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강대한 미군의 지배에 대해 오키나와 민중은 끈질긴 비폭력 저항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것은 미군정에 대한 싸움으로부터 오키나와 반환 후의 기지 유지 정책에 반대하는 싸움까지 수많은 기복을 그리면서 계속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미군의 실탄 연습 착탄 지점에 잠입하여 헛불을 듚으로써 이를 저지시키려는 등, 목숨을 건 비폭력 실력 투쟁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제적 차별이나 사회적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군용지의 임대차계약을 계속하여 거부한 반전 지주의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싸움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비폭력 투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명의 미군 병사에 의한 소녀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1995년 가을 미군기지의 정리, 축소, 철거 요구 싸움도 이러한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싸움은 50년대 중반의 섬 전체가 참가한 투쟁, 70년대 전후의 반전복귀투쟁에 이은, 이른바 오키나와 민중운동 제3의 물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소녀 한 명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안보란 무엇인가를 묻는 인권투쟁으로 시작했지만, 그 배후에는 안보재정의라 불리우는 일미동맹의 강화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는 반전지주 토지의 강제 사용 기간이 갱신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의 상승작용에 의해 순식간에 고조된 민중운동의 압력을 받아, 오키나와현 지사는 군용지의 강제 사용절차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행정 절차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현과의 전면 대결이 발생하여, 지사의 직무 집행을 요구하기 위해 총리가 현지사를 상대로 대리서명 소송을 제기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오키나와 반환 후 강화되고 있었던 일본이라는 국가를 상대화하는 관점도 일거에 표면화되었습니다.

인권투쟁과 평화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겸비한 전후 오키나와 민중운동의 제 3의 물결은, 자치, 자립을 요구하는 투쟁으로서의 성격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사는 중앙정부에 곧 무릎을 꿇었지만, 지사와 결별한 민중은 민중 자신에 의한 자기결정권의 획득을 지향하여 주민투표를 조직하여 승리했습니다. 97년의 나고시(市) 투표는 지역 주민의 자치권 확대의 길을 개척하는 데서 선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전후 오키나와 민중운동 제 3의 물결은 침체에 빠져 있던 일본의 민중운동에 충격을 가했지만, 거꾸로 과잉 기대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미 양 정부는, 기지 면적의 축소와 경제적 진흥책으로 민중운동의 예봉을 피하고, 노후한 미군기지의 재편 강화를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중 핵심적인 것이, 후텐

마 기지의 나고시(市) 동해안 헤노코로의 이전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오키나와현 지사와 나고시 시장의 동의는 어떻게든 얻을 수 있었지만, 민중의 격렬한 반대에 맞닥뜨려 암초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2000년에 일본에서 열린 선진8개국(G8) 정상회의를 오키나와에서 개최한 배경에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키나와가 도쿄 이외의 지역 중 최초로 정상회의 장소로 선택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세계 전략의 군사적 거점인 오키나와에서 미국을 축으로 하는 동쪽의 일미 안보, 서쪽의 나토라는 군사 동맹의 결속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정상회의라는 세계적 이벤트를 이용하여 오키나와 미군 기지 재편 강화 정책을 오키나와 사회가 받아들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키나와전(戰)의 희생자들의 이름을 적,아군 구별 없이 새긴 평화의 주춧돌을 방문한 클린턴 미 대통령이 오키나와 민중을 향해, 바로 오키나와전과 같은 비참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일미 동맹이 존재하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키나와의 미군기지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는 연설을 한 것도 그러한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미군기지를 용인하는 것은 국제 평화에 공헌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려 하는 일미 양 정부의 여러 가지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정상회의가 기지 문제에 이용될 것을 염려한 많은 사람들이 정상회의를 기지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민중의 목소리를 발산하는 장소로 역전시키려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운동단체 중 하나인 오키나와에서 기지를 없애고 세계의 평화를 추구하는 시민연락회(약칭, 평화시민연락회)는 일미 안보 공동선언이 발표된 4월 17일, 오키나와에서 평화를 호소하는 4.17 집회를 열어, 전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민중들을 향해 우리들이 바라는 평화란 지구상의 사람들이 자연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한정된 자원과 부를 될 수 있는 한 평등하게 나눠 가지며, 결코 폭력(군사력)을 사용하는 일이 없이, 서로 다른 문화,가치관,제도를 중시하며 공생하는 것입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95년 이후 오키나와 민중운동의 특징 중 한 가지는 국경을 넘어선 민중 상호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에 있습니다. 95년 가을 오키나와 민중의 쉼기는 국경을 넘어 민중 상호간의 연결을 낳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反) 기지 운동과의 연대가 깊어진 것은 특기할 만한 일입니다. 미군 병사의 흉악 범죄에서 비롯된, 기지 정리,축소와 일미 소파의 개정을 요구하는 오키나와 민중운동의 커다란 파도는 한국에서 같은 문제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으며, 오키나와에서도 한국과의 교류 창구로서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운동을 통해 오키나와와 한국 민중의 연대를 지향하는 모임(약칭,한오키나와민중연대)가 결성되어, 서울과 나하에서 3년에 걸쳐 매년 번갈아 공동으로 미군기지 문제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서로의 처지를 공유하였습니다.

대항 정상회의 운동의 일환으로서 행해진 국제회의 및 교류집회는, 오키나와의 반기지 투쟁이 그 고립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운동에 확신을 갖게 되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자치령인 프에르토리코의 반 기지 운동과의 교류는 새로운 성과였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집약점이, 2만 7천 명의 사람들이 인간의 사슬로 극동 최대의 카데나 미 공군 기지

를 포위한 7월 20일의 행동입니다.

이러한 민중운동 진전의 배경에는 또 하나의 정상회담, 즉 한반도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배경에 남북한의 경제적 사정 및 정치적 사정도 복잡하게 작용했다 하더라도, 이 정상회담이 평화를 요구하는 한국 민중운동의 압력을 받았다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가치관과 제도를 서로 존중하며 공생하는 시도의 첫 걸음입니다. 그것은 베트남의 무력 통일과도, 서독에 의한 동독의 병합과도 다른 새로운 가능성의 맹아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힘에 의한 가치관 및 질서의 강요가 아닌, 다양한 가치관의 공생과 힘에 기반을 두지 않는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타이완 문제 및 남사제도(南沙諸島) 문제 등 당면한 국내적, 국제적 모든 문제의 해결을 평화적 대화에 맡기려는 태도를 선명히 하고, 군사력불행사의 방향성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일미 공동 패권주의 참주선동을 폭로하는 데서 한반도의 남북정상회담 이상으로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키나와 및 한국의 민중운동과 함께 동아시아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공헌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2001년 4월, 오키나와에서 열린 동아시아의 평화와 오키나와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움에서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일변했습니다. 미국의 네오콘과 이른바 납치 문제를 악용한 일본의 반복한 파의 의도되지 않은 제휴 아래, 일미 양국은 온통 애국적 편집증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도, 적어도 행정 차원에서는, 경제적 보상과 교환하는 조건이라면 기지를 용인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한 광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의 상황입니다. 현재 오키나와 및 일본의 운동의 정체를 뒤로 한 채, 한국의 민중 운동은 동아시아 평화운동의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에 대한 열광이 미군 차량에 의한 중학생 살해 사건에 대한 분노와 연결되어, 서해에서 일어난 남북의 군사 충돌이라는 사고에도 개의치 않고 대통령 선거로까지 발전해 간 운동의 사회적 층의 두터움은 그 후 정권과 운동권의 나뉘짐에 의한 혼미함 등등을 제쳐두고라도, 경탄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도, 국경을 넘어 넓혀져 가는 가운데, 자신의 역사적 체험을 살리는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시민연락회는 일찍부터 이라크 공격 반대 운동에 열심이였으며, 1월에는 이라크에 파견단을 보낸 바 있습니다. 지상전을 체험한 노인들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의 주일대사관에 찾아가,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공격 승인결의안에 반대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걸프전 때보다도 이라크&#8228;중동은 훨씬 더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경을 뛰어넘어 넓혀져 가는 일천만의 반전 데모로 이어지는 이러한 행동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저지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세계적 군사 체제의 확대를 막을 직접적인 힘은, 이라크 민중 자신의 몸을 내던진 무장 저항 투쟁이지, 비폭력 저항운동은 아닙니다. 이 현실을 직시할 때 저희들은, 부당한 지배에 대한 무장 저항 투쟁과 저희들이 쌓아 온 비폭력 저항 투쟁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세계적인 민중의 평화적 공생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번역글2◆

미군의 필리핀 복귀에 대해  
- 안전보장, 인권, 평화에 대한 영향 -

이 글은 제5회 아시아태평양 평화군축공생 국제회의에서 오감포 필리핀 바얀 무나당 총재가 한 연설을 번역한 것이다.

- 편집자주 -

1991년 미군 기지 사용을 연장하는 조약의 역사적 거부로, 필리핀과 미국은 어려운 관계가 되었다. 필리핀에 대한 미국 군사 원조와 개발 원조, 무역상의 양허가 대폭 삭감되었다. 그 후 수년 간 필리핀 정부는 미국군에 영토를 재개방하려는 시도를 몇 번이고 거듭하였으나, 민족주의적인 국회의원과 저명 인사, 시민활동가와 노동자, 농민, 여성 및 각 분야의 단체들의 민중 운동에 의해 좌절되었다. 정부에게 또 하나의 거대한 장해로서 작용했던 것은 필리핀 헌법이다. 필리핀 헌법은 조약이 상원에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군사시설의 재설치 및 외국군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1999년, 조세프 에스트라다 대통령 재임시 「필미방문군지위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의 비준에 따라 정치 상황은 상당히 변하였다. VFA는 일시적인 미비합동군사 연습과 기동연습을 구실로, 미국의 군대와 무기의 복귀와 군사 원조의 부활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매년 이루어지는 Balikatan (어깨를 걸고라는 뜻) 연습 등을 포함한다.

9월 11일 테러 공격을, 워싱턴은 국제적 테러와 싸운다는 구실로 미군의 공격을 강화시키기 위한 편리한 변명으로 이용하였다. 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은 전세계 곳곳에 미군의 전방전개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타국과의 2국간 안전보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해외의 미군기지를 재강화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아부 사야프 무장집단에 의한 외국인 여행자의 납치 등에 따라, 필리핀은 부시 정부에 의해 대테러 전쟁의 제2전선으로 지정되었다. 부정확한 군사 정보 보고서 속에서 아부 사야프는, 미국의 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해 알카에다의 네트워크와 연관되어 있다고 묘사되었다. 그러나 세밀히 보면, 이 그룹의 중심적인 지도부는 일찍이 1990년대 초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CIA에 의해 훈련되었던 용병이었다.

제2전선 결정은 필리핀 국내의 안전보장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점점 더 증대시킬 길을 열었다. 워싱턴은 필리핀 정부의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과 필리핀 공산당-신인민군(CCP-NPA)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 행위에 직접적으로 간여하게 되었다.

그 주요한 추진력은 부시 대통령의 세계적 대테러 전쟁에 대한 행정권의 전면적인 지지가

다.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 아래에서 필리핀은 헌법, 국제법, UN 헌장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시 정권의 선제공격 독트린과 미국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지지했다.

정부의 지지는, 군사 원조를 받는 조건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협정에 극비로 서명한 것을 보아도 명백하다. 2002년 11월 21일의 「미비상호군수지원협정」(MLSA) 및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2003년 5월 13일의 「미비불인도협정」 등도 그 예이다. 이들은 필리핀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서명된 것으로, 이로써 이 협정들의 합법성과 합헌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0월 7일, 필리핀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비가맹국 중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 공식적으로 격상되었다. 그러한 나라로서 필리핀은 열화우라늄 무기를 포함한 미군의 무기 및 군사설비를 저장할 자격을 부여받았다.

미의회의 2003년 6월 27일 공청회 보고서에 의하면, 미군 태평양사령부의 토머스 파고 사령관은 현지 군대와 협력하여 필리핀에 긴요한 전술적 이동 거점을 건설하려 한다는 것을 시인했다. 또 군간부는 영구적인 자유필리핀 작전기간에 실시된 것과 같이, 테러와 싸우기 위해 어떤 장소에도 특수 작전부대를 전개할 수 있는 태평양사령부의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파고 사령관의 설명은, 민다나오나 이웃나라들에서 미국의 이익이 위협받을 때, 필리핀이 미국의 침략전쟁과 군사공격의 출격기지로서 미군태평양사령부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국내 안전보장 문제에 관한 미국의 군사적 간섭 강화는, 정치적인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애국자법과 국토안전보장법은 필리핀 의회에 상정 중인 법안, 특히 반테러법과 놀랄 만큼 닮았다. 한편, 미국이 필리핀 공산당, 신인민군과 정치 망명중인 호세 마리아 시손 교수를 테러리스트라 낙인찍고 있다는 사실은, 공산군의 수십 년에 이르는 무장투쟁에 대한 평화협상과 정치적 해결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있다.

또 하나의 결과는 바얀 무나를 포함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대중조직에 공산당의 전선 조직이라는 딱지를 붙인 것이다. 현지 지도자와 이러한 단체들의 회원들은 군과 경찰과 공작원 등의 무력화의 표적이 되어 있다. 의견을 달리하는 모든 자들을 억누르는 정치적 억압이 강화되면서, 인권 존중과 수호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다.

미국의 군사적&#8228;정치적 간섭의 꾸준한 증대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대해서도 진정한 안전보장 및 인권과 평화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 유일 초대국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기구 및 국제법을 계속하여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군사적 원조 및 개발 원조 등을 받는 대신에 그러한 행위를 공공연하게 묵인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과 미국의 안전보장관계는 철저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관계는 주로 미국의 정치&#8228;군사적 정책에 봉사하는 것일 뿐, 필리핀과 아시아 태평양

에 보다 불안정한 상황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부각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과, 극비로 서명된 군사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논쟁적인 문제 등을 수면 위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검토는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인간적이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필리핀을 위한 사람들의 역사적 투쟁을 옹호하는 가운데서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진정한 평화와 협력을 늘리는 근본적 이익은 서서히 다가오는 외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는것이다.

◆미군범죄◆

맥팔랜드 출석재판과 구속처벌을 촉구하며!

평통사 기지협정팀 이형수

작년 12월 평통사는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서울지법 형사 15단독(김재환 판사) 주재로 열린 한강 독극물 방류범인 주한 미8군 영안실 소장 맥팔랜드에 대한 두 차례의 재판에 맥팔랜드의 출석재판 및 구속처벌 촉구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방청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01년 검찰이 맥팔랜드에 대해 5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를 하자,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맥팔랜드를 정식재판에 회부한 지 2년 8개월만에 진행된 것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 진행된 이번 재판은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에 치명적인 독극물을 대량 방류한 맥팔랜드를 반드시 한국 법정에 세워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바랐던 국민적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지난 12월 19일 맥팔랜드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으나 첫 번째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당국은 맥팔랜드를 출석시키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였으며, 재판부는 1월 9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당국은 맥팔랜드의 독극물 방류사건은 공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재판관할권이 주한미군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당국의 이러한 주장은 한국 검찰이 2001년 500만 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할 때까지 한국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500만원까지 예납하여 한국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다가, 담당 재판부가 정식재판에 회부하자 그때서야 공무증명서를 발부한 그동안의 과정을 지켜봤을 때에도 어떠한 설득력과 정당성도 없다.

또한 검찰이 이번 재판에서 약식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500만원 벌금형을 그대로 구형한 것은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해 담당 재판부의 정식 재판 회부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자, 엄중 처벌을 바랐던 우리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또한 법무부와 외교부 등이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한국의 사법주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주한미군당국을 강력히 규탄하고 맥팔랜드의 출석재판과 한국의 재판권 행사를 인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 정부와 사법당국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오는 1월 9일 맥팔랜드가 없이 궤석으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사법부가 직권으로 맥팔랜드를 정식재판에 회부한 취지에 전



혀 맞지 않다는 점에서 그 결정은 번복되어야 마땅하다. 주한미군 당국이 맥팔랜드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권석 재판을 진행하여 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그런 재판 결과는 실질적인 형벌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판부가 2차 재판에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했을 때 맥팔랜드가 벌금을 예납한 것은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며 검찰과 맥팔랜드 측에 벌금을 낸 경위 등에 대한 입장을 문서로 제출할 것을 명하고, 맥팔랜드가 나왔으면 물어볼 것도 많았는데라며 아쉬움을 토론했던 것에 비춰봤을 때도 권석으로 선고 공판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처사다.

재판부에게 맥팔랜드의 재판 출석과 구속처벌을 거듭 촉구한다. 이것만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저질러지는 주한미군의 범죄를 단죄하고 최소화하는 길이다.

◆회원탐방◆

정 해 열 고 문

▶ 항상 소녀같이 밝은신데 어떤 비결이 있으신지요?

(웃음)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어떤 일이나 좀 편안한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전 성격이 과격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요. 언제든지 젊은 쪽으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 가족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남편과 4남매를 두었습니다. 2남 2녀 중 큰딸은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연구원이고, 큰아들은 과천정부종합청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둘째딸은 사업을 하고 있고, 막내아들은 민중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 평통사 회원들이 고문님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비결과 활동하시면서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무슨 비결이라기보다 삶의 요구대로 하는 거죠. 우리 세대가 왜정 때 대동아 전쟁도 겪었고, 또 6.25 를 겪으면서 기가 막힌 사회에서 살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겪은 가족사 - 특히 아버님 - 의 영향이 크죠.

8&#8228;15 해방을 12살 때 맞이했는데, 어렸지만 사회의식적인 면에서 성숙했었나 봐요. 아버님께서 공주 남로당 군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집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런 분위기에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의식이 짝튼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해서 살다보니까 활동이 여의치 않았었는데, 아이들 다 키워놓고 향린교회에 다니면서, 홍목사님을 만나게 되어 이렇게 활동하게 되었어요. 향린교회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한 25~26년 전부터 다녔어요.

▶ 회원들에게 가족사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조부님과 부모님 계셨고, 결혼 전인 삼촌이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형제는 없고 저 혼자예요. 아버님은 9살 유년시절부터 독립운동 하는 분들과 지하에 피신해 다니는 분들을 계속 뒷바라지 해주셨어요. 우리 고향이 이북인데, 해주고보(해주고등보통학교) 시절에 학생운동을 굉장히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말씀을 잘하셨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 때도 아버님께서 연단에 올라서 말씀을 하시면 학생들이 호응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서 교장의 비리 때문에 제명 당하셨어요. 친정 집이 옛날에 지주였어요. 평북 철산 대지주였는데, 왜정 때도 돈의 힘이 그렇게 컸던가 봐요. 많은 돈을 어떻게 해 가지고 신의주 고보를 다시 다니셨어요. 그리고 대학을 일본 명치대학 다니셨는데, 공부를 하시는 중에 여름방학에 나오셨다가 신간회 사건에 연루되신 거죠. 거기서 10년형을 받으셨어요.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아버님을 빼내려고 투자한 게 말도 못하신대요. 3학년 때 겨우 보석으로 나오셔서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셨죠. 학교도 다시 못 가시고... 그렇게 은둔생활을 계속 하셨어요. 왜정 때 그랬으니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어요. 움직이는 대로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

가산도 다 탕진되고... 그 때 그런 운동한 사람들은 재산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고향에서 버틸 수가 없으니까 충남 계룡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 때 내려와서 4년 있다가 해방을 맞았어요.

난 그때 우리의 세상이 오는 줄 알았어요. 기쁨에 넘쳐 가지고 우리 집에서 태극기를 몇 백 개를 그려서 농민들 동네사람들 끌어 모아 가지고 막걸리 파티를 하고 풍물 치면서 며칠동안 축제가 벌어졌죠. 이제는 정말 우리의 세상이 되나보다 했더니, 불과 그런지 얼마 안 돼서 아버님이 자주 외출이 심하시더라고요. 자꾸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바빠서 그러시나보다 했더니 남로당 운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가 멀게 검거돼서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셨죠. 그러다가 김구 선생 돌아가신 그 해 검거돼서 대전 형무소에서 수감생활 하시다가 6.25를 만나서 그 때 희생당하신 거죠.

어머님은, 그런 남편의 아내들은 뻔하잖아요. 집안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까 계속 가장이었죠. 시부모 모시고. 그러다가 인민군 들어오고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여성동맹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러다가 9.28 때 검거돼서 공주형무소에 수감 중에 병이 나셨어요. 장티푸스를 앓으시다가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신 상태에서 1.4 후퇴를 만나서 트럭에 실려 대전으로 이송됐구 거기서 희생당하셨죠. 제가 그 때 마침 면회를 갔는데,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고 하니 대전으로 간다고 해요. 거기서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배낭하나 짊어지고 쫓아갔어요. 그땐 뭐 교통도 없고, 시골에서 겨울에 계룡산을 넘어서 대전 형무소에 도착하니 이미 떠나고 안 계시더라구요. 난 집에 들러서 가고 어머니는 바로 가셨으니까. 그 때 마침 형무소 간수 중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버님 때문에 면회 다니다가 얼굴을 익힌 사람인데, 학생 왜 또 왔냐고 그래서 어머니가 또 여기로 오셨다고 하니 어머니 이미 떠나셨다고 전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만이었죠. 내 나이 17살 때 6.25 나던 그 해에 어머니 아버님을 줄지에 다 잃었어요. (아버님, 어머니 존함이?) 아버님은 정상윤, 어머니는 이정기. 그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운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럴 수도 없었지만 이렇게 활동 할 수 있는 힘이 지.

할아버지도 8.15 후에 남로당 당원으로 입당하셔서 그것 때문에 쫓기다가 6.25 전쟁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 과란만장한 한국 현대사가 고스란히 가족사에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수 없이 많은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제가 보기엔 약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반면에 굉장히 강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입으로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런데, 미모가 저기(?)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내가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부모가 있었다는 것, 아버님 면회 다니고 그런 뒷바라지를 했을 뿐이지 무슨 활동을 했겠어요.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나를 끌고 가서 협박하고 어떻게 해보겠다 하면서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순히 자백하고 자기 말 들어주면 살게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그 때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는 무남독녀 외딸로 곱게 자랐거든요. 그렇다가 부모가 줄지에 희생되고 그런 형편인데도 하나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누가 협박하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느냐. 지금 내 형편이 이렇고 힘이 없지만 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너희 앞에 무릎꿇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너 사람 잘못 봤다. 죄 없는 나를 죽일만한 이유가 있으면 죽여라. 그랬더니 못 그러더라고. 거기서 성경구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네가 죽을 힘을 다하면 살리라는, 거기서 그걸 깨달았는데 교회는 그 후에 나갔어요.(웃음)

HID 같은 곳에 불러 다니고 있었는데 난 항상 당당했어요. 언젠가 HID에 끌려갔는데 어떤 군인이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는가, 부모가 활동한 것을 가지고 이 어린애에게 시련을 주는가라며 도와줘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HID에 붙들려 갔을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하면서 집까지 바래다주었어요. 마침 그 때 어머니를 고발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분이 다음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제 앞에 무릎을 꿇려놓고 나한테 사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죠. 그 다음부터는 어깨를 펴고 살았죠. 지금도 대전에 생존해 계세요. 지금 장로님이세요. 그 분이 저희 아버님을 그 인격 때문에 굉장히 존경하셨다고 해요. 아버님 재판에도 다 참석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그 분이 제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셨죠. 정말 제 목숨의 은인이죠. 올 봄에도 한번 가서 뵈었어요.

▶ 평통사 회원과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6.25를 겪으면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희생 당해서 결국은 왜놈으로부터 해방됐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주권국가를 세우지 못하게 된거죠. 미국의 점령을 당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 신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통일이 되고 우리도 하나의 떳떳한 주권국가가 돼야 그런 일을 모면할 거 아녜요.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끝날 때까지 열심히 일하셨으면 하는 부탁이에요.

인터뷰 정리 | 김현진

◆2004 갑신년 새해 포부와 다짐◆

◆자주와 평화, 통일을 향해 단결로 한 걸음, 투쟁으로 한 걸음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의장 이행우

<평화누리 통일누리>의 지면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모든 회원들, 남측의 자주, 평화, 통일운동 인사들께 깊은 존경과 연대의 뜻을 담아 2004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로써 창립 10주년을 맞는 평통사의 회원들께는 2004년 새해가 남다른 감회와 새로운 다짐의 시간으로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 평통사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시정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해 매항리 폭격장 폐쇄, 용산 미군기지 반환, 소파개정, 두여중생 살인사건 진상 규명 운동을 힘있게 전개, 이 같은 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리고 당면해서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 정책 반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저지, 미국의 한반도 위기 조성을 반대하는 자주와 반전평화 운동을 가열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은 남측의 운동진영이 조국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백방으로 힘을 기울인 한 해였으며, 우리 미주지역 민족민주운동진영에게도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미주지역 민족민주운동진영의 모든 단체들이 힘을 모아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씨에서 <7.27 정전협정체결 50주년 코리아의 자주평화 대회>를 성대히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평통사의 홍근수 상임대표, 고영대 사무처장, 김종일 기지협정팀장을 비롯한 남측의 운동단체인사, 해내외 인사들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우리 미주민족민주운동 진영은 해내외 운동진영의 단결 투쟁만이 민족의 장래와 운명을 빛나게 열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3년이 우리 해내외 운동진영에게 준 역사적인 교훈과 2004년을 여는 해내외 운동진영의 포부와 다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조국의 자주와 평화, 통일의 새날을 향해 단결로 한걸음, 투쟁으로 한걸음 더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조국과 민족 앞에 이전보다 더 많은 땀과 노력을 바칠 때, 유리한 정세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풀어 가는 열쇠는 단호한 결심과 완강한 실천, 연대와 단결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여 힘있게 전진합시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2004년 새해를 민족민주운동이 승리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 갑시다.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해내외 모든 동지들이 2004년 한 해 동안 내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새 해에는 우리 모두 희망의 문을 열자  
평통사 공동대표 진관 합장

동해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새해에는 우리 민족이 그렇게 염원했던 조국 통일의 문을 힘차게 열어젖히자. 만일 이를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둔갑한 자들이 분명하다. 조국이 분단이 되지 59년, 이는 우리 민족의 수치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단군 조상의 혼을 수호하면서 1만 년이란 역사를 안고 살아 온 민족이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분단 59년이란 참으로 비극적이다.

우리 조국이 우리 대에 통일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갈 지 모른다. 고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삼국이 통일이 되지 못하고 당나라의 힘으로 우리 민족의 영토를 모두 빼앗기고 반쪽의 땅을 차지하는 비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비극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는 상실된 국토를 다시 찾을 길을 탐구해야 한다. 고려시대 묘청스님의 민족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린 역사를 회복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얼마 전 신문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중국이 자기의 역사로 도둑질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정신은 상실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저 만주 별관을 상실하게 한 죄, 이것은 민족의 반역사적인 일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를 민족의 몸으로 하지 못하고 외세의 앞잡이로 나선 사대주의자들의 소행이다. 김부식이 같은, 매국노 이완용이 같은, 매국노 이승만 같은 친미주의자들, 그들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 버린 것을 알 수 있다. 분명히 109년 전에 일어난 전봉준 장군의 힘을 우리가 지켰다면 우리 민족은 분단이 되지 않았을 것이며 하나된 조국에서 민족문화를 수호하며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민족의 혼을 지켰을 몸이다.

우리는 민족의 자주화, 민주화, 조국 통일의 몸으로 희망의 문을 열고 나서자.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양키 군대는 제 집으로 돌아갈 것을 민중의 이름으로 말한다. 우리 민족의 정신은 단군의 홍익인간의 정신이다. 우리 민족은 인간의 몸을 소중히 하는 인간 중심의 정신과 사상이 있다. 동해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을 안고 인간 자연과 함께 우리 민족의 역사를 회복하는 희망의 문을 우리가 힘차게 열고 나서자.

####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에

그 누구라도 작은 벽돌 하나 쌓을 수 있도록...

부천평통사 공동대표 주정숙

오늘은 많은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탄절이다. 물론 기다리는 이유는 제각각이겠지만...

IMF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들 하는데 택시 기사님도 한 마디 하신다. 예전 같았으면

길거리에 버려진 선물포장지가 날려 다닐텐데 그런 모습이 없더라고, 국민들의 높아진 시민 의식 때문일까?

오늘은 부천역에서 파병결정 철회를 위한 성탄 예배가 있었다.

지역에서 민중교회로 알려진 몇몇 곳이 파병결정 이후 성탄절을 맞아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길거리 예배를 드린다. 처음 참여하는 예배시간이었지만 그리 어색하지 않은, 이색적이고도 참여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올 초부터 전쟁의 먹구름이 진하게 드리우더니 일년 내내 한반도의 평화, 새만금 갯벌에 평화, 불안 군민들의 평화, 노동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평화 등 평화를 입에 달고 산다. 이 땅에 사는 민중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자신과, 가족 나아가 한반도 평화의 질실함에 한해를 열심히 뛰지 않았을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 어수선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이다.

그 바빴던 2003년을 돌아보며 희망차고 밝아야 할 2004년을 그려본다. 그리고 내가 못했던 올해의 많은 일들이 부끄럽게도 얼굴을 붉히게 만든다.

부천평통사가 창립한 지 6개월.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대전에서 부안으로 지난 몇 년간 지방을 다녀본 것만큼이나 지방을 많이 다닌 한 해이다. 기쁜 일일 것이다. 여러 지역에, 전국 곳곳에 생기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지역을 더 실속있게 뿌리내리는 것 또한 중요하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부천평통사의 6개월은 어떠했는가?

새로운 얼굴도 많이 늘고, 이전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사무실을 가득 메운다. 그러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빈 구석이 느껴진다.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회원 배가, 이를 통한 더 의미 있는 실천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자 고민거리이다.

그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에 그 누구라도 작은 벽돌 하나 쌓을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천평통사가 지금 몇몇의 평통사가 아니라 부천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 2004년은 게으르지 않게 고민하고, 실천을 통해 연구하는 그런 해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잘 되질 않는 고민을 위해 머리를 싸맨다. (딱 싸맬수록 좋은 실천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 ◆새해 인사

광주전남 평통사 상임대표 배종렬

갑신년(甲申年) 새해가 밝아 옵니다. 전국의 회원님들께 복받으시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가, 우리 겨레에게는 통일이 앞당겨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광주전남 평통사는 지난해 11월24일 3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총회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저

와 같이 공동대표를 맡으신 세 분은 학계와 교계,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역전의 투사들이신데 8샷동이 같은 제가 상임대표를 맡아 잘해낼지 염려스럽습니다.

광주전남 평통사는 이제 걸음마 단계이지만 조지 부시가 우리를 앓아 있지 못하게 하고 국내의 친미 반통일세력들이 우리를 부추겨 주고 있습니다. 우리회원들이 아직 적은 수이고 평화, 군축, 통일에 대한 사상적 무장이 덜 되어 있더라도 갑오 농민군의 혼과 5.18 영령들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 민족혼이 살아 있다면 우리가 어찌 편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저 양키군대가 한반도를 반세기 이상 짓이기고, 저 탱크 소리, 대포 소리, 헬리콥터 소리들은 우리를 잠들 수 없게 하고, 휴전선으로 한반도의 기(氣)를 막아 기가 막혀 살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 땅의 민중들이 분연히 일어섭시다. 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조지 부시가 전쟁승리를 선언했고 사담 후세인까지 체포했으면 미군은 이라크에서 철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장기 주둔하듯 이라크에서 장기 주둔하기 위해 강도짓을 하는데 왜 우리 젊은이들을 파병해야 합니까?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라크파병을 저지합시다.

우리는 12월 22일 첫 운영위원회 겸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몇 가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첫째 조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려 합니다.

둘째는 전체회의를 정례화하고 회의 장소도 광주에서만 모일 것이 아니라 전남 지역을 순방하며 모이면서 강사님들을 모셔서 학습도 하기로 했습니다. 04년 첫모임은 2월 중순에 무안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셋째는 나이가 많으신 박광운 고문님께서 이라크 파병반대를 위해 도청 앞 천막농성을 하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열정들이 결집되어 우리 광주전남 평통사는 성장하면서 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켜 평화를 정착시키고 겨레의 통일을 앞당기는데 초석이 되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2004년에는 소망하는 모든 게 이뤄지길...

서울평통사 사무국장 오미정

항상 그렇듯이.

연말 연초라는 시기는 미련, 아쉬움, 기대와 희망이라는 감정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시기입니다. 막연한 기대에 부풀다가도, 그 기대가 구체화될수록 두려움이 생기고, 막막해 지는 것이 요즘의 감정 기복입니다. 그나마 아직 시도해 볼 기회가 남아있음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안도합니다. 새해에는 함 해보자고...

2003년은 서울 평통사의 창립과 이사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실무역량도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힘에 부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2004년이 기대가 되는 근거 중의 하나는 실무 역량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실무자들이 서울 평통사의 사업을 꾸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해볼 만하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창립으로 갑자기 늘어난 회원과 덩치가 커진 사업 속에서 허둥대며 오류가 많았습니다. 지



난 통일벗 시절(가족적이고, 튼튼한 결속력을 자랑했지만 소수였던..)과 비교해서 달라진 조건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죠. 회원들의 상태와 조건이 달라지고, 거기에 맞춰 회원사업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최근 조금 깨달았습니다. 올해 회원사업의 방식은 올해와는 질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모여라 ~ 가 아니라 구체적 대상과 구체적 사업을 가지고 회원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의 계획입니다.

평통사 본부가 서울에 있는 조건에서 서울평통사 자체의 실천사업, 연대사업을 하는 것이 애매모호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한번 시도라도 해 봐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따져봤더니, 지역 평통사중에서 서울평통사 실무자들이 가장 젊은(?) 실무자더군요.(^^)

서울 평통사 회원여러분! 관대한 마음으로 실무자들의 실수를 봐 주시구요.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새해에는 정말정말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복 ~ 많이 ~ 받으세요.

#### ◆더 낮은 곳에서 땀흘려 노동하는

대중들과 함께하는 평화통일운동 전개할 터

인천 평통사 사무국장 정동석

2004년 새해가 밝았다. 돌이켜 보면 2003년은 나에게 있어 커다란 의미가 있는 해였다. 무엇보다도 자주, 평화, 통일이라는 기치아래 창립한 인천 평통사의 결성이 내 운동적 삶의 커다란 전환이었기 때문이다. 2003년 4월 3일 출소 후, 5월 18일 지난 8년여간 정들었던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의 해산, 5월 24일 인천 평통사 창립, 6월 6일 평통사 재창립 총회 그리고 송년회를 거쳐 2004년 2기 총회를 앞둔 현재의 시점까지 정말 정신 없었던, 그러면서도 가슴 벅찬 활동의 연속이었다.

특히 소수의 인원(30명)이 결의를 하고, 70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인천 평통사의 창립 총회, 현재는 119명의 회원과 9개의 분회 모임, 66명의 후원회원으로 어느덧 기틀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우리 평통사 운동에 대한 자신감과 신심을 얻은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였다.

올 2004년도의 포부와 다짐은 첫째로 지난 해의 성과를 이어 인천 평통사를 보다 안정적이고 활동력 있으며 회원들이 굳게 단결하는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해 작지만 소중하게 모인 회원들의 뜻과 의지들을 모으고 그들의 창발성이 최대한 발휘되는 조직을 만들고자 한다.

또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땀흘려 노동하는 노동자, 농민, 노점상 등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인천 평통사를 만들고 싶다. 자주, 평화, 통일에 가장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 동안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많은 제한성이 있던 사람들, 그 모든 이

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움직이는 인천 평통사를 만들고 싶다.

역사는 투쟁하는 대중의 것이라 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처음에는 소수의 활동가의 헌신적인 노력에서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올 한해 정말로 낮은 곳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회원들과 대중들 속에서 몸바쳐 헌신하고 그들 속에 인천 평통사의 뿌리를 굳건히 다지는 한 해를 만들어 보겠다.

◆전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 줄 순 없다!

대전충남 평통사 운영위원 유요열

어릴 때 우리를 늘 불안에 떨게 만든 것은 붉은 괴수의 남침야욕이었다. 끊임없이 세뇌했던 독재정권 덕분에 어린 우리들은 북한의 이웃을 뿔 달린 괴수로 피에 굶주린 마수로 열심히 포스터에 그려댔다. 실제상황이라는 공습경보에 온 나라가 호들갑을 떨었던 그 때를 누가 평화의 시대라 하겠는가!

언젠가 북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진 않았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든지 우리의 동의 없이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깡패를 친구로 두었다고 잘난 척 할 수 있을까! 깡패 덕을 보았다고 자랑 할 수 있을까! 그놈의 깡패의 폭력이 언제든지 나를 향할 수 있는데...

2003년 미국에 의한 명분 없는 이라크 침략전쟁을 보며, 그 살상의 현장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생각했다. 정신대로, 강제징용으로, 원폭 피해자로 희생당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알지도 못하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형제의 가슴에 총뿔리를 겨누어야 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전쟁의 위협 때문에 늘 불안에 떨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우리들. 아, 이 불안을, 이 공포를 또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 줄 순 없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적어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는 벗어나야 한다는 소박한 마음이 나의 걸음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로 향하게 만들었다.

죽으라고 정치권은 변하지 않지만 이미 민중들은 달라졌다. 미국을 보는 눈도 달라졌고, 명분 없는 전쟁을 보는 눈도 달라졌다. 그리고 수구 단체가 별별 소리를 다 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성장했다. 이 땅에서 전쟁을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수 없는 전쟁의 희생 속에 우리 민중들은 지혜롭게 깨우쳤고, 변화했다. 여전히 미국의 힘이 막강해 보이고, 여전히 친미수구들이 난립하고, 여전히 승미 정치권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평화의 시대는 우리 가까이 오고 있다.

2004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평화를 향한 민중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그 길에 나도 더불어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전쟁과 공포의 시대가 아닌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몫을 감당하는 새해가 되길 소망한다.

◆2004년은 평화운동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는 해가 되기를 바라며...

전북 평통사 사무국장 조광수

2003년도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평통사가 조직적으로 많은 변화들을 겪었고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즉, 전국화, 대중화, 전문화의 기치를 들고 전국적 조직으로 거듭났는가 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진로를 좀더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치열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더불어 대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듯 쉽 없이 한 해 동안 일해 온 결과 조직적으로나 대중적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중앙과 다른 지역의 대표님들과 일꾼들, 그리고 회원들에게 무한한 애정과 존경을 표하며 2004년도에도 더욱 활발하게 사업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전북 평통사는 조직사업이나 투쟁사업 등 많은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생긴 지역조직으로서 더욱 활발한 사업과 활동을 통해서 모범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 전국의 모든 동지들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2004년에는 평통사가 명실상부하게 전국화, 전문화, 대중화된 조직으로의 면모를 갖추 수 있도록 전북 평통사가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동지들께서 이러한 저희들의 결의와 앞으로의 노력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평통사 동지들의 헌신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이러한 결실들이 모여 평통사를 통해서 평화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욕심을 버리는 한 해이길 스스로에게 바라며

서울 평통사 이윤영

낮선 이의 전화번호가 뻗다. 평통사 회지에 실릴 새해 포부와 다짐의 글을 부탁하는 전화다.

하겠다고 했지만..., 원고 마감날짜를 넘기고 말았다. 몇 해 전인지 기억이 나질 않지만 강원도의 힘이란 영화를 본적이 있었다. 스물을 갓 넘긴 여주인공의 대사 나에겐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보인다. 정확한 대사는 아닌 것 같지만 의미인즉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상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여주인공보다 훨씬 많은 나이였지만 그때까지 나에게 세상은 만만한 곳이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뿐... 세상에 하지 못할 일들이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내 나이 이제 서른넷... 세상은 그리 녹록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 세상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들이 날 지배한다. 노동으로 얻은 댓가만

이 가치있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 사실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노력하지 않고 얻는 댓가들에 마음이 들뜨고, 간간히 행복해지고 싶은 일상의 모습들이 어느덧 내 마음속을 채우게 되었다.

욕심이 날 흔들고 괴롭히며 나의 생활을 재촉하는 현실 속에서 나의 가치관은 무력해져만 가는데...

무기력해지는 삶에서 2004년은 욕심을 버리는 한해이길 스스로에게 바란다. 남보다 더 가지지 못해 마음상하는 일 없고... 평통사 활동에 내 시간을 할애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평통사 회원들에 대한 끈끈한 애정이 가족들에 대한 마음보다 작지 않기를... 나 스스로에게 바래본다.

◆2003년 끝자락에서 다짐했던 마음들이  
2004년 끝자락까지 변하지 않기를 또한 바란다.

인천 평통사 운영위원 (김포농민회장) 최병중

농민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편치 못한 세상인 것 같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무려 1,080 개의 품목이 무관세가 된다. 이는 바로 농민들에게 핵폭탄이다. 그래서 FTA를 반대하는 4백만 농민들의 절규하는 함성이 여의도에 울리고 있는 것이다.

FTA가 국회 비준을 통과하면 농민들의 분노는 어디로 갈 것이며 최후의 절규는 무엇이 될 것인가? FTA는 농업의 생명을 죽이는 것임을 깨닫고, 정치인들은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남겨서는 안 된다.

지난 추석 연휴 때 멀리 멕시코 칸쿤에서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던 이경해 열사를 보지 않았는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반대를 외치며 죽음을 선택한 농민은 이경해 열사뿐이 아니다. 우리 정치인과 국민들은 WTO, FTA,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와중에 조류독감, 뉴캐슬, 돼지콜레라, 광우병 등 축산 농가의 치명적 피해가 잇달아 더욱 안타깝다.

하지만 우리는 농업의 미래가 민족의 미래라는 긍지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민족농업을 사수할 것이며 농업을 해치려는 외세와 매판 세력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는 모든 단체 또는 모든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또한 통일대비 7천만 겨레의 식량을 생산할 농지를 보존할 것이며 조국통일 새날을 여는데 선두에 설 것이며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끝으로 평통사 회원동지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모든 단체들이 연대하여 자주&#8228;민주&#8228;통일을 이룩하기를 바라며, 갑신년 새해에는 많은 정치인들이 정신 좀 차리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내가 부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부천 평통사 김덕근

부천 &#43088;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43089;을 처음 만났을 때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기차에 대한 기억, 아니 기차에 탄 사람들에 대한 기억.

어린 시절 더위를 피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냇가에 물놀이를 가곤 했는데 거기엔 큰 철교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심과 그늘 그리고 철교 기둥사이가 한번 물질에 딱 닿을 만한 거리여서 헤엄 꽤나 하는 친구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으면 철교 위로 으레 기차가 지나다녔는데 저는 왠지 기차가 달리는 모습이 좋아 기차가 철교 위를 지나갈 때면 그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산 어귀에서부터 기적을 울리고 그 육중한 철교를 가볍게 흔들며 막힘 없는 물처럼 힘차게 달리는 기차, 그리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추를 내 놓고 손 흔들는 나에게 밝은 웃음으로 함께 손 흔들며 답례하는 기차에 탄 행복한 사람들.

2003년 올 한해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의 희생양으로 눈 맑은 아이들 이 폭격과 총격에 의해 무참히 죽어갔고 이 땅에서는 자본의 무차별적 가압류와 차별에 항거한 열사들이 가족과 동지들의 곁을 떠나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이런 절망스런 일들 중에서도 하나의 촛불은 타올랐습니다. 지난 10 여 년 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해 왔던 여러 단체들이 전문화,전국화,대중화의 기치 아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한 틀 안에 전국적인 단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지난 6월 1일 부천평통사 창립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곳 부천은 중소기업 사업장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부천평통사 회원의 대부분은 이러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제가 평통사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 혹은 열의보다는 연장근무나 철야작업 등을 마친 지친 몸으로 평통사 사무실로 나와 서로에게 보여주던 맑고 고운 미소들과 실천들을 보면서입니다. 잔업, 철야의 고된 일과 속에서도 밝은 웃음을 잃지 않고, 제기된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실천하는 평통사 회원들의 모습이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2004년 한해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기차를 타고 있던 사람들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과 지금 전 함께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실천한다면 어린 기억의 그 기차보다 더 힘차게 평화와 통일의 세상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맘껏 재주를 부리는 평통사가 되기를...

대전충남평통사 운영위원 서영완

희망에 찬 새 세기라던 21 세기에 접어 든 지도 벌써 다섯 번 째의 새해를 맞습니다. 21 세기가 되면 인류의 평화와 행복은 증진되고, 지난 이십 세기 내내 지구촌을 수놓았던 크고 작은 분쟁들도 잦아들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은 아직까지는 그냥 바람으로만 존재하고 있

습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은 전쟁의 참화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라크 전쟁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의 수많은 분쟁에는 어김없이 미국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유엔마저도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악의 축이니 &#43088;테러국가&#43089;니 규정짓고, 늘 전쟁 중이거나 전쟁 대기 상태인 미국의 모습이 현 지구상의 유일 초강대국의 모습이라면 인류의 평화는 아직 바램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국주의적 행태에 분노하면서 때로는 효순이, 미선이를 추모하며, 때로는 이라크 과병반대의 이름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어깨를 걸고 투쟁하여 왔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 한반도가 분단의 시대를 끝내고 통일의 시대로 이미 접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반통일, 반평화 세력과의 치열한 싸움이 예정되어 있기에 우리는 지난 한 해 투쟁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그것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재창립과 각 지역 평통사의 결성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우리 대전충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역시 여러 동지들의 수고와 대전충남 민주세력들의 지지 성원에 힘입어 힘차게 출범할 수 있었고, 조직의 강화와 활동력의 확대를 통해 대전충남의 평화 애호 세력, 통일 세력을 한 데 모으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계미년 목은 해가 대전충남 평통사를 비롯하여 평통사 전체의 조직 결성의 해였다면 갑신년 새해는 펼쳐진 마당에서 맘껏 재주를 부리는 귀여운 원숭이처럼 평화와 통일의 마당에서 우리 평통사가 맘껏 재주를 부리는 한 해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면한 이라크 과병반대 운동에서부터 조직을 확대 강화하는 우리 모습, 제 자신이 되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회원도 배가하고, 골간 간부도 세우고, 할 일 많은 새해 힘차게 뛰어서 대전충남에서 가장 활동력있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평통사 지화자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평화의 샘물이 되어 흐르고 싶어라.

광주전남 평통사 이진권

신앙양심이라는 내면의 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병역거부라는 좁고 험한 길을 평화롭게 걸어 간 오태양 길벗님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길벗님의 삶의 눈부신 모습이 저를 부끄럽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해 이라크에서 들려 온 평화의 일꾼들의 지혜롭고 용기 있는 모습에 감탄한 적도 있습니다.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함께 모여 평화를 위한 명상을 하고, 그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폭력과 죽음이 기다리는 현장으로 걸어갔던 그들은 진정 아름답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길벗들이라 여겨집니다.

2004년 새 해에는 더욱 새롭게 내면의 평화, 평화의 영성을 가꾸고 꽃피우는데 마음과 정성을 모으고 싶습니다. 내 딛는 걸음 한 걸음마다 평화의 정성을 모으자는 문규현 신부님의 절박한 제안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일상생활의 흐름 가운데서 평화의 샘물이 샘솟아 오르도록 평화의 기도를 매일 아침 깊이 있게 드리고 싶습니다. 일 주일에 한 끼는 금식을 하면서 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소리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악기와 작곡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평화의 심성을 일깨우고 삶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또한 새 해에는 평화운동의 치열한 현장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올 해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지요. 21세기를 다시 폭력과 증오의 시대로 되돌리는데 엄청난 공을 세우고 있는 부시가 재선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온 세계 평화운동세력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부시 낙선운동을 다양하게 벌일 것 같은데, 저도 그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실천하겠습니다. 평화운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공부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참여하겠습니다.

새 해에는 우리들 각자가 생활 가운데서 길어 올리는 평화의 샘물들이 모여 모여서 유유히 평화의 강물 되어 흐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원의 글◆

아는 만큼 움직여야 하는 삶...

인천 평통사 이 은 직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름도 참 부드러워졌다. 예전 학교 다닐 때 접할 수 있었던 통일운동 단체이름에 비해서 말이다. 강하고 힘있게 얘기해야만 눈길을 끌 수 있었던 통일이 이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명제로 스며들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부드럽게 얘기해도 공감할 수 있으며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통일운동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도 자주적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통일운동에 대한 분위기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해 온 사람들의 희생과 투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난 요즘들어 그들의 삶이 더 고귀해지고 그들을 통해 자주 통일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 평통사를 통해 그동안의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해 준 것에 감사한다.

난 대학을 졸업하고 먹고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다. 학교 다닐 때 어설피게나마 학생회에서 활동을 했던 것에 비하면 아마도 가장 보편적으로 기득권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른다. 같이 활동하던 선배, 동료들 중에서 몇몇은 노동현장으로, 몇몇은 보다 활발한 사회운동단체로 진로를 결정하여 투신하는 삶을 살아갔다. 자신의 소신과 사상을 지키며 불합리한 사회의 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선배, 동료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는 남모르는 죄스러움이 남곤 했고, 그럴 때마다 나름대로의 합리화를 하곤 했다. 지금은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해도 내가 있는 자리마다 늘 생각은 그들과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말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생각은 졸업 후 10년 동안 그나마 나를 사회에 크게 물들지 않게 하였고 나름대로 내가 위치한 상황마다 그들의 수고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였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자리에서는 수업시간을 통해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타이르고 비판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일, 정당에서 예비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자리에서는 혁명적이었던 예수님을 알려주면서 늘 사회의 일면을 함께 말해주는 일,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모임 안에서는 각종 선거 때마다 선거참여의식을 높여야함을 일러주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함을 나누던 일 등 그나마 내 삶 안에서의 소극적인 동참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일들은 그저 내가 다른 선배와 동료들에게 갖는 죄스러움, 조국과 민족에게 갖는 무책임을 그저 작은 실천으로 무마하고 자기만족에 빠져있었던 것이다. 실천이 없는 얇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그 얇 또한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진리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10년이란 시간은 점점 나에게 편안함을 알게 하여 움직일 수 없게 하였고, 이해함이 넓어짐으로서 타협을 알게 하였고 이는 곧 새로움과 문제인식이 없어지게 하였다. 점점 민족보다는 개인, 통일보다는 경제적 안정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도록 만들었다. 점점 더 안주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젠 정말 생각으로만, 자기합리화를 위한 실천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런 나의 생각을 담아 줄 평통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평통사에 가입하였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던 내게 당장 큰 변화를 주진 않을 것이다. 내가 평통사에 가입하였다는 것보다 평통사를 통해 어떻게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리라 본다. 평통사에 가입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짧은 기간을 돌아보면 점점 다시 변화하고 있는 나를 느낄 수 있다. 바쁜 일상에 자칫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과병문제, 미군기지문제, 미군범죄, 국방비인상문제 등에 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말이다.

안다는 것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을 준다. 모르면 문제의식이 없고 그렇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필요와 힘을 갖지 못한다.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 앎도 앎에 그치면 아무 소용없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것이 앎의 참 의미인 것 같다. 지금까지 그저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자기 합리화만 하며 지내온 나의 지난 시간들을 수정하여,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던 개인적인 만족과 안위를 위한 세속적인 앎이 아니라 민족과 자주적 통일을 위한 앎이 되도록 노력하고 싶다. 많이 알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는 만큼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삶 전체로 통일을 말하는 선배를 보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투쟁하는 동기들의 의지를 보면서, 못한 선배보다 더 깊은 통일관을 가지고 있는 후배를 보면서 이전 밖에서 박수만 쳐주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통일일꾼이 되어야 함을 생각해 본다.

거창한 실천보다는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많은 상황과 사람들,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통일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는 사람이고 싶고, 그 실천을 평통사에서 함께 하고 싶다.

